

한교총, 차기 대표로 김정석 감독회장 내정

상임회장회의서 인선위 중간보고 받아... 사무총장 인선안은 보류
공동대표회장은 김동기·홍사진 목사... 향후 추가 가능성
김종혁 대표, 사무총장·법인사무총장 인선안 제시했지만
논의 끝에 최종안은 다음 상임회장회의 때 결정하기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이 차기(제9회) 대표회장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인 김정석 목사를 내정했다.

한교총은 최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회의실에서 제8-4차 상임회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원인선위원회 중간보고를 받았다. 공동대표회장은 김동기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와 홍사진 목사(예성 총회장)를 우선 내정했고, 차기 대표회장이 1-2명의 공동대표회장을 더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교총은 회원 교단을 규모별로 가나다라 군으로 나눠 대표회장과 공동 대표회장직을 안배하고 있다. 7천 교회 이상 교단으로 구성된 가군에는 예장 합동·통합·백석이 있고, 2천5백 교회 이상 교단으로 구성된 나군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있다. 이 밖에 1천 교회 이상의 다군은 7개 교단, 1천 교회 이하의 라군은 21개 교단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선 이번엔 임기가 끝나

는 사무총장과 법인사무총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일단 김종혁 대표회장은 공동대표회장들과 이 문제를 두고 의논했다며, 예장 통합 측이 추천하는 인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하고 법인사무총장은 현직인 정찬수 목사를 연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세워질 때 가군에 예장 합동과 통합, 두 교단만 있었고 합동 출신 목사님(신명식 목사)이 (4년 임기의) 사무총장을 맡아 연임을 거쳐 8년 동안 봉사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적으로 통합 출신 목사님이 사무총장을 맡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정찬수 법인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그 가 연임 없이 한 차례만 직을 수행했기에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하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회장은 현 사무총장인 신명식 목사가 한교총 초대 사무총장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노후가 있고 정부와도 관계해 왔던 만큼 따로 작제를 만들어 한교총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차기 대표회장님과 일할 분을 미리 뽑는 게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확정하면 전례가 안 좋은 것 같다. 결정은 차기 대표회장단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당장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정석 목사도 “시간을 갖고 의견도 들어서 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결국 김 대표회장이 제안한 사



한교총 제8-4차 상임회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무총장·법인사무총장 인선 안은 오는 25일 있을 다음 상임회장회의 때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오는 12월 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9회 정기총회 순서와 안건을 비롯해, 차기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진영 기자

‘2025 리바이벌 코리아’ 강남 한복판에서의 예배와 기도

그안에진리교회, 11월 23일
강남역 광장에서 복음 선포



그안에진리교회 (담임 이태희 목사)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 강남스퀘어에서 ‘리바이벌 코리아(REVIVAL KOREA) 강남광장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도회는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화개와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세 명 연사들의 교회와 사회 향한 메시지

1부에서는 찬양과 함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가 이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기도의 시간이 마련된다. “말씀을 통해 오늘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 가지신 뜻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먼저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한국교회를 향한 호소’라는 주제로 연설을 전하고, 이어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가 ‘대한민국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전하며, 이준근 박사



과거 리바이벌 코리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철영을 하던 모습 ©그안에진리교회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는 ‘트럼프 시대 세계 정치와 한반도 통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세 연사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며, 현시대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와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심도 있게 나눌 예정이다라고 주최 측은 전했다.

◆“거룩한 대한민국·통일한국은 오직 예수 안에”

기도회를 주관하는 이태희牧사는 “지금 한국교회와 사회는 새로운 영역 각성이 절실하다”며 “거룩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통일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부흥은 정치나 제도가 아

닌 화개와 기도에서 시작된다”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개인과 교회가 일어날 때, 이 땅에 영적 회복과 소망이 다시 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안에진리교회는 이번 기도회를 앞두고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예스 더 금식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각자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된다. 교회는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먼저 화개하고, 부흥의 불씨가 강남광장에서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속되는 광장사역, 기도와 복음의 불씨 이어가

교회 측은 “이번 강남광장기도회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그안에진리교회 담임인 이태희 목사 ©그안에진리교회

을 기초한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으로서 그안에진리교회가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이어온 ‘리바이벌 여의도 광장기도회 & 국민광장학교’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목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9호선 국회 의사당역 3번 출구 100m 직진)에서 열리는 광장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분별력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꾸준히 이끌고 있다.

이번 강남광장기도회는 그 동일한 부흥의 흐름을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확장하는 시간이라고 교회 측은 소개했다.

이태희 목사는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오직 복음과 화개로 이 나라의 부흥을 구한다”며 “이번 강남광장기도회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정부·선교단체, 2025 하반기 ‘해외선교 안전간담회’ 개최

해외파송 선교사 안전 확보,
선교단체의 안전의식 제고 다짐

외교부는 최근 ‘2025년 하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열고, 해외파송 선교사의 안전 확보와 선교단체의 해외 안전의식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단 선교부와 지역 선교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테러정보통신센터, 한국위기관리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테러 동향 및 주요 국가 정세 △각 단체의 위기관리 사례 △해외선교 안전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해외 선교사 파송 시 외교부가 제공하는 해외안전정보를 숙지하고,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공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선교단체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아프리카·중동·중남미 지역의 민간인 대상 테러에 주의할 필요성을 비롯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반정부 시위 확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송 선교사들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교부는 “현재 중국 내에서 한



‘2025년 하반기 정부-선교단체 안전간담회’가 열렸다. ©외교부

면제 조치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및 경유’ 목적의 방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교활동을 위한 중국 방문 시에는 관련 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지난 5월 개정된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내용을 소개하며 중국 내 종교활동 시 중국 국내 법령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남미, 서남아, 중국 등 6개 지역을 담당하는 외교부 각 부서 담당관들이 지역 정세를 공유하며 안전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해외 파송되는 선교사의 활동 계획을 미리 해당 공관에 공유하는 등 정부의 선교사 안전 확보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선영 기자

용산 처음이자 마지막 주택수 제외 실투자금 1억원대 투룸 오피스텔 분양

현대자동차연구소 (착공)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예정)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전자상가 열거중)

GRAND OPEN
선착순 분양

호창공원앞역

용산역

1 용산역

4 신용산역

GTX-B (예정)

신대저전역

KTX

경의중앙선

비교 불가! 오피스텔 위치 끝판왕

아시아 실리콘밸리 착공 / 용산 철도 지하화 개발
현대차 모빌리티 연구소 착공 / 국제업무지구 착공 예정
대한민국 핵심지역! / 대세불가 위치 오피스텔

압도적 스펙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프리미엄 발렛 / IoT 시스템 스마트 미러 / 25cm 더 높은
층고와 개방감 / 프라이빗 피트니스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일체 수익 극대화 원하는 분 / 개발호재로 시세이익을 원하는 분
주택수 부담없이 추가 투자 원하는 분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용산 마지막 1억대 투룸 투자 / 한시적 제공되는 주택수 제외
망설이는 순간 용산에서 다신 기회 없습니다

분양문의 **02-757-3000**

홍보관 주소: 용산구 서빙고로 17, 1층(센트럴파크타워)

“‘힘로’였던 32년 이주민 사역… 자라게 하신 하나님”

제45회 신춘포럼, ‘270만 이주민 시대, 선교인가 목회인가?’ 주제로 열려

제45회 신춘포럼(대표 박노훈 목사)이 최근 서울 신촌성결교회 아전홀에서 ‘270만 이주민 시대, 선교인가 목회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예배와 주제강연 및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주제 강연에선 이명재 목사(실로암교회)가 ‘이주민 목회, 그 시작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목사는 그가 담임하는 실로암교회의 다양한 미얀마 이주민 사역을 소개하며 “32년의 이주민 사역은 처음에는 멀고 먼 힘로만 같았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콩나물 시루에 물주는 것 같다’는 무시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렇게 물을 한없이 주다 보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너무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2월 미얀마 양곤을 방문했다. 실로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 자리에 100명이나 모였다. 할

아버지, 할머니가 된 형제자매들은 손주까지 손잡고 왔다”며 “불교의 대물림이 아닌 기독교를 대물림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 받았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이제 이주민 4세대가 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다”고 했다.

이목사는 “32년이 지나니 미얀마 전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다. 형제자매들이 한국에서는 고국이 아니기에 낯개를 펴지 못한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날부터 비전의 낯개를 펴기 시작한다”며 “한국에서 양육을 받고 만난 하나님을 가족, 친척, 이웃, 고향, 사회 주변으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실로암교회의) 한국 성도님들은 이주민 사역을 하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 성도님들은 미얀마 형제자매들과 일대일 관계로 맺어져 있어 주중에 서로의 안부를 묻



제45회 신춘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고 기도해주곤 한다. 정말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다. 언어와 인종과 문화가 달라도 모든 교회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됨을 기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의 사역 계획에 대해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민이 5만 3천 명에 이르고 있다. 어찌하든 그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접하도록 문서 사역을 해나갈 것이고, 실로암교회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미얀마로 주님께서 지정해 주

셨으니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사마리아인과 같은 역할을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그리고 그들이 실로암교회의 품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고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또 자기 백성을 품도록 격려와 위로를 주는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며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폭발 훈련이 있는데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돌아가 고국에서 킹덤 빌더(Kingdom Builder)로



이명재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신춘포럼

살도록 꿈을 나누는 사역 비전이 있다”고 했다.

강연 후에는 전철한 목사(한국외향선교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한국교회는 이주민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미얀마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이대창 장로(신촌성결교회 영어예배)가 나섰다.

미얀마 이주민들은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신앙을 가진 후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이야기 했다. 또 한국교회의 이주민 사역에 대한 생각과 향후 선교에 대한 계획 등과 관련해서도 그들의 의견을 나눴다.

한편, 신춘포럼 대표인 박노훈 목사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주노동자 공동체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진단하고 ‘현대의 신학’을 바탕으로 동행의 길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AI와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문화선교를 새롭게 상상하다

예장 통합 총회문화법임, ‘2025 문화목회플랫폼·선교적 교회로서 문화선교’ 세미나 개최

예장 통합 총회문화법임이사장 김운성 목사)이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운용 목사)에서 ‘2025 문화목회플랫폼·선교적 교회로서 문화선교’ 세미나를 ‘AI·기후위기 그리고 문화선교와 현재와 미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행사는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기 전 김운성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김목사는 “오늘 모임이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 가 되길 소망한다. 과거 교회가 문화적으로 앞서 있던 때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훨씬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시대에 교회는 여전히 대응에 더딘 현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목회적 방향과 문화적 사명을 다시 생각하며, 현장과 신앙이 만나는 접점을 찾아가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다. 총회 문화법임이 그 중심에서 더 폭넓은 사역을 펼쳐가길 기대하며, 모든 이들이 주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때 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은 ‘선교적 교회,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AI와 기후위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과소나 선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이 ‘기술을 뛰어넘는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과 연구원은 “로봇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시대,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로봇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있다. 연구의 축은 세 갈래다: 로봇이 환경사람을 인지해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소셜 로봇, 사람이 로봇을 어떻게 해석·추론·반응하는 지에 초점을 둔 인간 관점 설계, 그리고 청소기처럼 익숙한 제품에 자동화·지능을 입히는 지능형 제품 디자인. 사회심리학을 토대로 시선(게이즈) 설계처럼 미묘한 상호작용 규칙을 실험해 정교화한다.



과소나 선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이 ‘기술을 뛰어넘는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승연 기자

예컨대 일상 질문에는 응시가 신뢰를 높이지만, 당혹스러운 질문에서는 시선을 잠시 회피하는 편이 자연스러운 대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다이나믹하게 설계한다”고 했다.

그는 “사례로는 감정 신호를 따뜻함·진동·빛으로 주고받는 휴대용 감성 로봇, ‘불쾌한 골짜기’를 피하려 외형과 행동 복잡도를 맞춘 언어 청정 로봇(육설에 ‘멍’이 들었다가 바른 말에 회복되는 피드백 장치), 그리고 치료용 휴머노이드의 움직임은 문화 콘텐츠(뮤직비디오) 매체로 전환한 실험이 있다. 동시에 시장 실패를 거듭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분석해, 소비자자 외형으로 추정된 범주와 실제 기능이 어긋날 때 거부감이 커진다는 점을 짚는다. 사람처럼 보이면 ‘무엇이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기능만 제공하는 모순이 불만족을 키운다. 반대로 청소·가공·정기처럼 ‘무엇을 하는 물’건인지가 명확한 지능형 제품은 기대·경험 협합성이 높아 수용성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점에서 한글 블록 놀이와 발음 학습을 결합한 ‘한글봇’, 생활공간을 용도에 맞춰 접고 펴며 재배열하는 로봇 가구 등 사람의 생활 맥락에 맞춰 움직이는 사물’들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소셜 로봇을 허브로, 여러 지능형 제품이 협력하는 예코시스템을 구상하고, 로봇이 사람의 행위를 ‘대체(반복·위험·더러운 3D 업무)하거나 ‘유도(동기·보상·재미·미로 행동을 이끌기)하는 두 축의 성적표를 제시한다. 쓰레기통을 예로 들면 자동 수거장치는 대체에, 떨어지는 소리·피드백으로 버리게 만드는 장치는 유도에 해당한다. 일상의 선한 습관 형성, 배움과 돌봄의 현장에서 로봇은 주인공이 아니라 ‘맥락’을 읽고 의미 있게 거드는 조연일 때 가장 큰 가치를 낸다”고 했다.

이어 박훈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가 ‘기후위기 시대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훈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가 ‘기후위기 시대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승연 기자

박 교수는 “전 세계가 동시에 겪는 ‘삼중 위기’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폐기물이 인류의 안전선을 넘고 있다. 지구 시스템의 건강지표인 ‘행성 한계’ 9개 중 7개가 이미 위험 공간으로 넘어섰고,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지구 평균기온은 최근 10년 기준 약 1.2~1.3℃ 올랐다. 대기 중 CO₂ 농도는 산업혁명 전 280ppm 안팎에서 오늘날 420ppm+로 치솟아 수백만 년 사이 전례 없는 속도로 상승 중이다. 기후변화는 단일 이슈가 아니라 다른 한계들에 연쇄적으로 충격을 주는 ‘슈퍼 리스크’이며, 생물다양성 붕괴의 결정적 가속 요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징후는 더 뚜렷하다. 폭염일수는 빠르게 늘고(세기 말 최악 시나리오에서 연 100일+), 밤 기온 상승으로 열대야가 심화된다. 미세먼지는 WHO 권고치(연평균 5µg/m³)의 4배를 넘고, 지표오존은 개선 기미가 없다. 지난 20년간 자연 생태계 순손실은 OECD 최상위권이며, 매년 도시·도로·공장 확장으로 임야가 대거 전환된다. 2024~2025년 격한 산불·극한고는 사례처럼, ‘300년에 한 번급’ 기상 조건이 더 잦아지는 추세도 확인된다. 이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안전과 건강, 생계에 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해법은 과학 합의 위에서 ‘완화(배출 감축) + 적응(피해 저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지자체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정책부터 집중해야 한다: 전기화(수송·난방의 전기 전환), 전력의 탈 탄소(풍력·태양광 등 재생 비중 확대), 자연 생태계 보전·복원, 수자원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효과 큰 행동을 우선순위로—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가정 난방·냉방의 고 효율화(히트펌프 등), 식단·이동의 저탄소화—하고, 재활용 등 효과가 작은 활동은 ‘추가로’ 둔다. 동시에 적응을 위해선 ‘위해요인·취약성·노출·대응’ 네 축을 줄이고 키우는 회복탄력성 전략이 필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분명한 방향이 있다. 창조 세계를 ‘정복’이 아니라 ‘돌봄’과 ‘형제·자매’로 읽어온 전통을 오늘의 위기 속에서 재확인하고, 희망

의 실현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자연을 나누께 드리는 예배의 장으로 보고, 배출

감축과 생태 회복,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응답이 된다.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와 이웃 사랑에 근거한 대화·연대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질문은 ‘기후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첫 세션에 이어 ‘선교적 교회, 문화선교를 실천하다: 3040세대 새로운 교회, ‘토크 콘서트’, ‘문화선교 네트워크’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최승연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동아제약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김정석 감독회장, 증경감독들에게 최근 입법의회 결과 설명



김정석 감독회장이 일영본부로 초청한 증경감독 원로목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감

일영본부로 21명 초청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이 역대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을 역임하고 은퇴한 원로목사들을 일영본부로 초청해 본부 이전에 관해 설명하고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입법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5일 일영본부에서 가진 초청 행사에는 감독회장을 역임한 표용은 감독, 김진호

감독, 전용재 감독, 전명구 감독과 연회 감독을 역임한 원로목사들 17명을 합해 모두 21명이 참석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해 11월 총회실행부회의에서 본부 이전을 의결한 이후 올해 5월 일영본부로 이전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향후 은급기금 마련과 운용에 관해 안내했다. 또 김 감독회장은 최근 입법의회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감에 따르면 그는

감독회장 4년 겸임제를 비롯해 입법의회 이후 형성되는 개체교회 재산의 증여와 신탁 구분, 은급부담금의 0.3% 상향조정 안 등에 관해 설명하고 본부의 홍보 마비로 부결됐음을 알렸다. 이어 “향후 감리회 미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원로 지도자로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대표로 답사한 김진호 감독(제25대 감독회장 역임)은 “본부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한 김정석 감독회장에게 감사와 치하의 마음을 표하고 감리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흥하도록 원로 지도자들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표용은 감독(20대 감독회장 역임)의 축도로 모임을 마친 증경감독 원로목사들은 김정석 감독회장의 안내로 4층부터 1층까지 각 국을 비롯한 연회 사무실을 돌아봤다. 김진영 기자

뉴욕교협 정기총회, 회장 및 부회장 선출 불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프라미스교회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을 위한 회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과반에 미치지 못해 회장 선출이 무산됐다.

이날 공천위원회(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허연행 목사를 회장 후보로, 김용익 목사를 부회장 후보로 보고했다. 총회에

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안을 가결할지를 두고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24대 26으로 부결됐다. 과반(26표)에 2표가 부족한 결과였다.

허연행 목사의 연임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현행 뉴욕교협 헌법에는 ‘회장은 교단별로 매년 순번에 따라 선출한다’는 규정과 ‘같은 교단에서는 3년간 후보를 낼 수 없다’

는 조항이 있어, 이 해석에 따르면 동일 교단 소속 회장의 연임은 헌법상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연임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투표로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반면 “현행 헌법 구조상 같은 교단의 연속 후보 등록은 불법이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약 3시간 동안 공방이 이어진 끝에 결국 투표가 진행

됐다. 결과적으로 허 목사 연임안은 부결됐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선출되지 못했다.

허연행 목사는 공천위원회가 자신을 차기 회장 후보로 한 차례 더 내는데 대해 연임을 고사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파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이날 총회 자리에서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교협의 정상화를 위해 본인의 거취를 회원들이 결정한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번 결과로 제51회기 뉴욕교협은 차기 회장을 정하지 못한 채 총회를 마쳤



뉴욕교협이 6일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폐회됐다. ©김대원 기자

다. 일반적으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현 회장이 약 3개월간 회무에 한해의 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권한은 없다.

한편 공천위원회는 올 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다. 이번에 회

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조직이 자동 해산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날 제기됐다. 그러나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공천위원회 활동은 3개월간 유효하다”며 현 공천위가 당분간 선관위 기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원 기자

뉴욕교협 헌법개정안 최종 부결... 회장 연임 조항 신설 무산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4일 교협 회관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속회를 열고 회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헌법개정안이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헌법개정안의 핵심은 ‘회장 연임 조항 신설’이었다. 교협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임시총회가 고성과 소란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날 다시 속회를 공고하고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한 엄격한 회원 자격을 적용해 회의를 진행했다.

공문을 통해 교협은 “11월 4일 임시총회 참석과 투표권은 50회기 회비를 납부한 회원교회에 한해 인정한다”며 “회비를 내지 않은 교회는 입장 자체를 불허하고, 회의 방해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날 회무에서는 회비 납부 조건을 충족한 교회들에만 투표권



뉴욕교협 임시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투표를 위해 2년간 납부한 회비를 기준으로 작성서를 좌우로 구분했다. ©김대원 기자

이 부여됐지만, 회비 납부 요건이 되지 않은 교회에도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일부 발언을 허락하는 등 일정 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는 회비 납부 교회 소속 총대 22명이 참석했으며, 헌법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찬성 9

표에 그쳐 통과 기준인 3분의 2(15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헌법개정은 이뤄지지 못한 채, 교협은 11월 6일 정기총회를 결의했다. 한편 교협 집행부는 정기총회 역시 ‘최근 2년간 회비를 연속 납부한 교회에만 회원 자격과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제2차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 통일의 현장 독일에서 열린다

‘통일, 그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개최 예정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총재 황우여, 이사장 송기학)가 주관하는 제2차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가 오는 12월 3~11일 독일에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통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내외에서 35년째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지난 2015년

한반도 분단 70주년 특별기획행사 일환으로, 독일 통일의 주역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통일,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서울과 판문점 등지에서 개최했던 제1차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 10주년을 맞아 금번에 제2차컨퍼런스를 독일에서 진행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베를린장벽붕괴 36주년과 독일평화통일 35주년, 그리고 우리민족교류협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는 금번 행사는 특별히 독일 평화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던 ‘월요평화기도회’가 시작된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

회를 방문하여 현지인들과 더불어 ‘제13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와 한반도 통일기원 기도회’를 진행함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에 대한 염원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더불어, 독일평화통일의 상징이며 그 현장인 베를린 장벽과 브란덴부르크문 등 통일관련 주요 유적지와, 성령의 역사로 최초의 개신교회가 된 헤렌후트 베를브로트프교회 등 종교 및 문화 유적지를 순례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다일공동체, 37번째 ‘다일의 날’... 소외 이웃과 함께 나눔의 축제

다일공동체가 오는 11월 11일, 창립 37주년을 맞아 ‘다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1988년 11월 11일 청량리에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으로 시작된 다일공동체는 현재 11개국 22개 분원에서 ‘밥과’, ‘빵과’, ‘꿈과’ 사역을 이야기며 전 세계에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고 있다.

‘다일의 날’은 소외되고 지친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동대문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무의탁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다일공동체는 “37년 전의 첫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되찾는 시간으로 준비했다”며 이웃과의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에서는 11월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과 최고령 어르신을 초청해 따뜻한 생신잔치가 진행된다. 다일공동체는 약 700여 명분의 특식과 선물을 마련해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와 사랑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7년간 봉사과 후원으로 함께해온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 증정식도 함께 열린다.

식전행사에는 인크라이스트팀의 워십댄스, 베다니교회팀의 색소폰 연주, 안디

옥교회의 순가라난타, 한울시각장애인예술단의 합창, 그리고 트로트 가수 향기의 공연 등 다양한 축하 무대가 마련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밥사모(밥줍)를 사랑하는 모임’, ‘빵사모(빵줍)를 사랑하는 모임’, ‘꿈사모(꿈줍)를 사랑하는 모임’ 등 다일공동체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임명하는 시간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다일공동체는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이어가는 후원자들과 더욱 단단한 공동체적 연대를 다질 예정이다. 정지동 기자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프러스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시애틀 온누리교회 임직식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시애틀 온누리교회 임직식 기념촬영 ©교회 측 제공

시애틀 온누리교회(담임 김재형 목사)는 지난 11월 2일 주일, 임직식을 갖고 권사 5명과 안수집사 1명 등 총 6명의 새로운 직분자를 세웠다.

이날 임직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직분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 충성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형牧사는 임직자들을 향해 “주님

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구도자가 되라”고 권면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겸손과 섬김의 학교”(마태복음 23:1-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재형牧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권력과 군마가 아닌 평화의 상징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신 것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섬기

시는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이라며,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순종의 삶으로 더욱 낮아져 하나님께 앞서는 제자들이 되자”고 전했다.

또한 김牧사는 “임직은 권위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자리”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며 섬김의 자리를 지켜가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어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슬픔 가

운데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성도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하라”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의 길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김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임직자들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 차애나 권사는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며, “직분자로서 더욱 겸손히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선 기자

주지사 후보의 후원회장 랜스 그리고 에스더 김 부부

랜스 김과 에스더 김 부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체안(Che Ahn/한국명 안재호) 후보의 후원회장이다. 랜스 김 부부는 최근 열심히 한인타운을 누비며 체안 후보를 알리고 있다. 랜스 김 부부는 체안 후보가 섬기는 하비스트 반석교회 장로다. 랜스김 장로는 체안 후보를 목사로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큰 축복을 받았다.



랜스 김과 에스더 김 부부. ©김민선 기자

랜스 김 장로는 10대 초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 온 1.5세대. 아버지(김영배)는 육군 소령 출신이고 어머니(정명숙)는 간호 장교1기로 육군 대위 출신이다. 하지만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았다. 랜스의 아버지는 편의점 가게를 운영했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렵게 되자 랜스김은 24살에 리퀘(Liquor) 가게를 운영하며 가장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사업은 쉽지 않았다. 강도만 7번 당했다. 물론 생명의 위협도 느꼈다. 랜스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방향도 했다. 동생의 어려운 삶을 아는 누님(미셸 송 집사)의 권유로 누님이 출석했던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당시 담임 한기홍 목사) 영아부 부흥회에 참석했다.

당시 청년 랜스 김은 삶의 막다른 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믿음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고 내 삶을 바꿔 주세요!’라는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을 때였다. 하나님은 그를 부흥회 강사님의 메시지와 안수기도를 통해 만나주셨다. 랜스 김 장로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과 그 목사님을 평생 따르

기로 했다. 그 부흥회 강사가 바로 체안(Che Ahn/안재호) 목사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랜스 김의 삶을 완전히 바꿔 주셨다. 리퀘스토어를 정리하고 반도체 사업을 하게 하였고, 사업에 큰 복을 주셨다. 랜스 김은 매주 왕복 3시간을 운전하며 파나메나에 있는 추수반석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었고 결혼 후 부부 장로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놓치지 않았다.

랜스 김 장로 부부는 체안(안재호)후보가 목사로 살아온 길을 제자와 동역자로 함께 걸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체안(안재호) 후보를 가까이서 지켜 보며 그의 믿음, 용기 그리고 신실함을 알게 되었다. 김장로 부부는 체안 후보가 주지사로 출마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원하게 돕고 있다. 체안 후보의 후원이나 선거 활동에 관한 문의는 랜스 김 장로(714 878 1289)에게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세미한교회, ‘Jazz & Acoustic 전도 콘서트’ 개최

음악을 통한 복음의 향연, “Timeless Jazz & Acoustic 전도 콘서트”가 지난 10월 22일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세미한교회 수요여성예배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성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문화 전도 행사였다.

7080 대중가요와 올드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재해석되어 무대에 올랐고, 따뜻한 재즈 선율과 어쿠스틱 사운드로 공연의 맛이 열렸다. 관객들은 자연스레 리듬을 따라 몸을 흔들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다. 특히 세대를 초월해 함께 부를 수 있는 명곡들이 연주될 때마다, 객석 곳곳에서 따라 부르는 목소리와 미소가 번지며 따뜻한 공감의 무대를 만들어냈다. 이날 콘서트에는 한국인 교인들뿐 아니라 멕시코, 인도,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이 함께 자리했다. 언어와 문화



콘서트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의 장벽을 넘어 하나로 어우러진 무대는 복음의 울림을 생생히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세미한교회 안희영 담임사모(수요여성예배 담당)는 “세미한 수요여성예배는 불가를 학기마다 10주간 진행되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다. 앞으로 수요여성예배가 세미한교회뿐 아니라 지역의 믿음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

려하고, 기도로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콘서트를 기획한 김윤진 전도사는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에는 생명이 넘치듯, 이번 콘서트를 통해 가을 학기 동안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했다”며, “음악은 언어와 세대를 초월해 마음을 잇는 도구다. 이번 전도 콘서트를 통해 교회

가 지역사회 속에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찬양곡과 함께 이은상 담임목사의 복음 메시지가 전해져 많은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남겼다. 세미한교회는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아틀란타벤엘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로 12명 임직자 세위

아틀란타벤엘교회(담임 이혜진 목사) 창립 10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가 지난 주일(2일) 오후 5시 로렌스빌에 위치한 본당에서 거행됐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올려드렸다.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미주성결교단 동남지방회 부회장 김종민 목사(애틀랜타성결교회) 사회로 진행됐으며, 개식사, 찬송, 기도예 이어 김종규 목사(동남지방회 회계, 플레그십교회 담임)의 성경봉독(로마서 12장 1-2절)으로 이어졌다. 벤엘교회 어린이 합창단은 특송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나로부터 시작



아틀란타벤엘교회 창립 10주년 임직감사예배를 기념하며. ©교회 측 제공

되리를 올려드렸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단에 선 이경원 목사(동남지방회 회장, 잔스크리칸인교회 담임)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자 결단한 자들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그 러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자들이라고 서두를 뻔했다.

그는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분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마음을 바꿔야 생각이 바뀌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 오직 예수만 생애 최고의 가치로 추구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직분자들이 될 것이다” 권면했다.

임직자들은 이혜진 목사의 인도로 서약하고 안수례를 한 뒤 공포했다. 임직을 받은 박영삼 장로가 임직 사명 선언문을 선포한 뒤, 이경원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은퇴목사)가 축사하고 담임목사가 권면했다. 예배는 최낙산 목사(잔스크리칸인교회 원로, 미주성결교회 증경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 됐다.

김영복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한국 선교 지도자들 “미전도종족 선교에 다시 집중하자”

KWMA, 제23회 한선지포서 UPG·UUPG 선교 사명 재확인…
‘동반자적 선교 실천·다음 세대 계승·지속적인 네트워크’ 등 결의

한국선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따라 미전도종족 선교에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향한 사역을 최우선적인 사명으로 붙들고 가기로 결의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주최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 마지막 날 발표한 결의문에서는 미전도종족에 다시 선교의 초점을 맞추는 것 뿐 아니라, 대위임령 성취를 위한 협력과 동역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UPG & UUPG(미전도종족·미접촉종족, 마 24:14)를 주제로 열린 올해 한선지포에는 교단 및 선교단체 지도자, 목회자와 선교사 등 1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미

국 남침례교 해외선교부(IMB) 총재를 비롯한 IMB 리더십들이 초청돼 미전도종족 선교 동향과 전략, 협력 방안 등을 공유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마 28:19-20)을 선교 사명으로 재확인하며,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이 한국교회의 최우선적 선교의 사명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미전도종족 선교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세계 선교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다시금 사명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 한국교회는 1990년대 초부터 미전도종족(UPG) 입양 및 파송 운동이 활발했으나, 2000년대 이후 전쟁과 테러 등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UPG, UUPG 지역에서의 선교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삶의 선교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2020년대에는 코로나 이후 미전도종족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라앉았다.

참석자들은 “복음의 열정으로 세계 선교의 일선에서 미전도종족들을 향해 헌

신해 온 한국교회는 최근 선교사 파송과 현장 선교 전략에 있어서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적 관심과 집중성이 줄어들었음을 반성한다”며 “선교의 최종 완성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마 24:14)되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것(계 7:9-10)임을 재차 확

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6가지 결의 내용과 2가지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①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UPG & UUPG(미전도종족 & 미접촉종족) 선교 사명이 선교 트렌드를 초월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선교의 본질적 사명임을 확인하고 교회와 단체, 교단에서 UPG & UUPG를 향한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함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또 “②UPG & UUPG 선교를 위해 교회와 단체, 목회자와 현장 선교사들의 협력과 동역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대위임령 성취를 위한 동반자적 선교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③UPG & UUPG 선교를 위하여 현장 정보 수집, 업데이트 및 자료 공유에 단체와 선교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의했다.

선교의 흐름을 이어갈 다음 세대 리더 양성의 중요성과 UPG & UUPG 출신 이주민 및 유학생 선교, 협력 선교의 중요성

도 강조되었다. 선교 지도자들은 “④UPG & UUPG 선교의 사명을 다음 세대가 계승하도록 힘쓰고 ⑤국내 이주민, 유학생들을 우리에게 다가온 UPG & UUPG임을 인식하여 전략적으로 사역하며 ⑥우리는 UPG & UUPG 선교를 위하여 교회와 단체가 기도와 관심으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힘쓸 것”을 언급했다.

이번 결의의 액션 플랜으로는 ①UPG & UUPG 선교단체 라운드 테이블 모임과 UPG & UUPG 지역교회 라운드 테이블을 실시하고 ②(IMB의) GAPP 플랫폼 활용과 적용을 위한 세미나 실시가 포함됐다.

KWMA는 “급변하는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미전도종족 선교라는 근본적이고 확실한 사명을 재인식하고, 향후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지희 기자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上)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 바울 신학의 삶의 정황은 선교 그 자체
선교사의 삶이 곧 선교, ‘십자군 선교’ 아닌 ‘십자가 선교’ 정신의 회복이 시급

선교사를 위한 책 한 권

배안호 선교사의 책 사다리(2)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No Church without Mission)
(방동섭, 생명의말씀사, 2010)



들어가는 말(서론)
“교회를 교회 되게, 신학을 신학 되게, ‘신학과 선교학의 만남’”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 선교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실패하였고 소수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다.” 거시적 세계 교회사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No Church without Mission)>(생명의말씀사, 2010)는 한국교회의 선교학 교수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는 저서이다. 통쾌한 신학과 선교학의 만남이다.

이것이 바른 개혁주의 선교신학(Reformed Missiology)이다.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교 교수들의 추천사가 예사롭지 않다.



배안호 선교사

동료 교수들은 ‘21세기 신학계에 가장 의미 있는 저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가지고 가서 매년 1번씩 읽어야 할 책이다, ‘누구나 선교를 말하려면 이 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선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책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책이다,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에 없었다고 추천했다.

“선교 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언제나 선교를 숨 쉬며 살아왔으며, 선교하면서 존재했고 또한 선교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며 생명이다.” (방동섭)

방동섭 교수는 총신대, 총신대 신대원, 합동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그랜드래피즈 칼빈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 재속의 개혁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981년 미국에서 15년간 성경신학, 조직신학, 선교신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integration)연구했다. 선교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연구하였기에 그의 선교학은 정체성이 동착적이면서 신선하다.

저자의 저서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입니다>(2001), <선교가 우리의 실존입니다>(2003), <영성을 깨운다>(2003), <위풍당당>(2008)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잠언을 접근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신학대학원 선교학 주임교수, GMC(지구촌선교공동체) 설립,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부회장, KMQ(Korea Mission Quarterly)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이 책은 전체 7부, 곧 ‘선교와 신학/선교와 성경/구약과 선교/신약과 선교/선교와 교회/선교와 전략/선교와 컨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서평자는 신학이 선교와 입맞춤하는 저자의 비전에 따라 ‘신학과 선교학’을 통합된 하나의 관점으로 본서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서평할 것이다.

1. 신학과 선교의 패러다임: 선교학의 독립성과 보완성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

선교는 사실상 신학의 어머니다. 선교를 보는 시각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 정

의가 천차만별이다. 주후 1세기 신약시대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탄생했다. 당연히 교회가 시작될 때 오늘과 같은 신학이 존재하였을까? “교회의 신학은 교회가 주님의 명령대로 선교를 순종하는 과정에서, 또한 그 결과로 선교의 현장과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품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p. 18, 당연한 사실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Mission is mother of theology, David Bosch)라고 했다. 주후 1세기 교회신학은 선교적 상황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았다. 하비 칸(Harvie M. Conn)은 “신학은 선교적인 반성(reflection) 바로 그 자체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신학은 그러한 선교의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속에서 점진적으로 태동된 것이다.

“하비 칸은 이에 대해 ‘프리 콘스탄틴 시대(the Pre-Constantine centuries)의 신학적인 어젠다(agenda)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선교에 의해 형성되었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의 동기가 당시의 교부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p. 19, 따라서 선교신학의 시작은 기독교 신학의 시작인 셈이다)

신약성경 27권은 사실상 선교의 문서들이다. 선교적 상황에서 기록되었다. 초대교회는 ‘선교하기’ 공동체였다. 바울 신

학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의 신학의 ‘삶

의 정황’(Sitz im Leben)이 선교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먼저 직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바울의 선교를 모르면 바울의 신학을 이해할 수 없다. 오늘날 신학도 마찬가지다. 선교를 모르는 신학은 참 신학일 수 없다. 또한 선교를 모르면 신학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p. 21, 그러나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바울 선교사는 없고 바울 신학만 난무한다’)

2. 성경적 선교: 선교의 동기/자세, ‘십자가 선교’와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

2.1 “왜 선교하려고 하는가?": 선교사 자신과 파송 교회의 선교 동기 점검

올바른 선교운동은 언제나 성경적인 선행한 정당성과 동기의 순수성을 갖는 것이다. “왜 선교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파송 받은 선교사와 파송교회의 선교의 동기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흐려지면 혼탁한 선교의 물질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선교 현장은 한 마디로 각종 세계관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터다. 제국주의적 동기/문화적 동기/상업주의적 동기/교회 식민주의적 동기 등은 역사적

으로 잘못된 선교의 동기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만일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구하지 않고 교회의 힘이나 국가의 경제력을 의존하거나, 교단의 패권주의나 선교단체의 공적에 앞세우는 선교를 시도한다면 결과는 불행하게도 또 다른 의미의 현대판 제국주

의 선교로 나타날 수 있다.” (p. 91)

18세기 영국교회 선교는 문화우월주의(cultural superiority) 선교였다. 하나님 나라가 서구 유럽 문화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복음 전파가 문명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최근 선교계의 BAM(Business as Mission)은 선교지에서 ‘선교 비즈니스 확장’에만 올인할 수 있다. 선교 현장에 토착교회(indigenous church)를 세운다고 하면서, 선교지에 설립하는 교회를 파송교회의 ‘지점교회(branch church)’로 강요한다면 ‘교회 식민주의’가 될 것이다. 선교사는 ‘파송교회의 지점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요, 그 지역(나라)의 토착교회, 곧 자립교회를 세우는 자이다. 서평자는 지점교회들을 여러 선교 현장에서 목도하였다.

2.2 선교의 성경적 동기: ‘주님의 선교 명령 앞에 자발적 순종’

성경적 선교 동기(4가지)는 ‘순종의 동기, 사랑의 동기, 영광의 동기, 예배의 동기’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동기를 먼저 보신다. 우리는 “너무나 빠른 이야기를 왜 또 하고 있느냐?”고 되레 시비를 건다. 한 마디로, ‘빛진 마음’(롬 1:14)이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를 추진하는 능력이다. 선교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 회복 운동이다. 이런 선교의 동기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

배안호 영국 선교사(Peterahbae@gmail.com)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 브릿지온이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갑니다!

브릿지온(Bridge On)은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공연과 전시를 전해드립니다.

문의 | 밀알복지재단 밀알문화예술센터

메일 | art@miral.org

전화 | 02-6411-3649

홈페이지 | 밀알문화예술센터.kr



자세히보기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애주기별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지위를 부여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합니다.

“엘파서 대학살, 남수단 난민 위기 악화시켜… 국제사회 긴급 대응 필요”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엘파서(EI Fasher)에서 발생한 대학살로 인해 남수단 난민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 구호단체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가 밝혔다.

위성사진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수단의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이 10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수단군으로부터 엘파서를 장악한 뒤, 현지 병원에서 약 460명을 총격으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 명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마을을 탈출하며 이미 수백만 명이 넘는 난민 행렬에 합류했다.

크리스천에이드 남수단 지부장 제임스 와니(James Wani)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와의 인터뷰에서 “총돌 이후 이미 100만 명이 넘는 난민과 귀환민이 남수단으로 유입됐다”며 “엘파서 함락 이후 사흘 만에 국경 지역 난민 유입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부 바르엘가잘 지역은 가장 가까운 입국 지점으로, 앞으로 더 많은 피난민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곳에서 들려오는 참혹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2023년 시작된 수단 내전으로 1,100만 명 이상

이 집을 잃었으며, 이 중 약 860만 명은 국내 실향민, 300만 명은 인접국으로 피신한 난민으로 추정된다. 유엔은 현재 수단을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적 위기 지역”으로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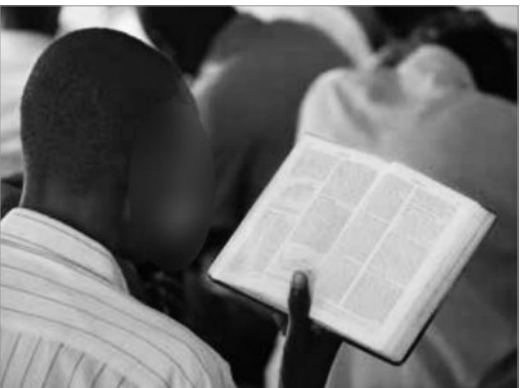
와니 지부장은 “렌크(Renk)의 크리스천에이드 임시 수용소는 원래 4,0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12,000명이 머물고 있다”며 “식량, 위생, 보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어린 소녀들과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남수단과 수단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가 연대해야 한다”며 “기도와 더불어

어 식량, 주거, 물, 교통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도움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크리스천에이드는 현지 파트너 단체 ‘휴머니티연합(Coalition for Humanity)’과 협력해 현금 지원과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 폴커 튀르크(Volker Türk)는 이번 학살을 “끔찍한 인권 유린”이라고 규정하며 RSF에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 통로 확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수단 기독교인(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오픈도어

윌리 라이스 목사, 美남침례회 차기 회장 출마 선언

“우리 시대의 갱신을 위해”

美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의 갈보리 침례교회(Calvary Baptist Church) 목사 윌리 라이스(Willy Rice, 62)가 내년 열릴 남침례회(SBC) 연차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나설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스牧사는 지난 10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회는 언제나 개혁 중에 있다”며 “우리 시대의 갱신(renewal)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 논제를 붙인 종교개혁 기념일(Reformation Day)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회는 끊임없이 수정과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새로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남침례회에는 진정한 성찰과 겸손한 교정이 필요한 우리들이 존재한다”며 “이제는 새로운 회복과 갱신의 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년 남침례회 연차총회는 내년 6월,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오렌지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라이스 목사는 40년 넘게 목회자로 사역해왔으며, 과거에도 SBC 회장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현 회장 클린트 프레슬리(Clint Pressley)는 2022년 라이스 목사를 추천하며 “그는 남침례회의 본질과 비전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라이스 목사가 속한 교회가 과거 성적 학대 전력에 있는 인물을 집사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라이스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올해 열린 SBC 총회에서 라이스 목사는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ERLC) 폐지를 제안하는 안건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ERLC를 수년간 옹호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며 “외부 진보 성향 단체의 재정 지원과 연계 의혹이 있었지만 회개나



미국 플로리다 클리어워터 갈보리 침례교회의 윌리 라이스 목사. ©YouTube/Calvary Church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라이스 목사는 “ERLC를 완전히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총회 표결에서 56.89% 반대, 42.84%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ERLC 전 회장(1988-2013) 겸 CP 편집위원인 리처드 랜드(Richard Land)는 “기관 해체는 해결책이 아니다”며 “논쟁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대화와 토론이지, 조직의 절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테네시 머프리스버로의 원처치(One Church) 담임목사 스티브 윌리스(Steve Willis)는 ERLC의 친생명(pro-life) 사역을 언급하며 “ERLC 만큼 태아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수호한 단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음과 장비를 임신 상담센터에 제공하는 등 실질적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귀중한 기관을 계속 지지하자”고 호소했다.

현재 SBC 회장인 프레슬리 목사는 2024년에 선출되어 연임 중이며, 규정상 내년에는 임기를 마친다. 이에 따라 2026년 총회에서는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라이스 목사는 “우리 교단은 개혁과 갱신을 통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 여정에 자신이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사마리아인의지갑, 허리케인 피해 입은 자메이카에 긴급 구호팀 파견

국제 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지갑(Samaritan's Purse)가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Melissa)’로 큰 피해를 입은 자메이카에 재난대응팀(DART)과 대규모 구호 물자를 긴급 파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카테고리 5급 허리케인 멜리사는 자메이카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현재까지 최소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여전히 많은 지역이 정전 상태에 놓여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와 식량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이번 폭풍은 기록상 카리브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자메이카뿐 아니라 아이티에서도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사마리아인의지갑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전세기를 통해 구호 인력과 물자를 자메이카로 공수했으며, 추가 인력과 물자도 곧 도착할



허리케인 멜리사 이후 자메이카의 지상 피해를 담은 항공 영상. ©Facebook/Samaritan's Purse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허리케인의 세력이 빠르게 강해지면서 항공 수송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구호 물자에는 정수 시스템, 태양광 조명, 임시 거주지 건축 자재 등이 포함됐다.

사마리아인의지갑 대표 프랭클린 그레함(Franklin Graham) 목사는 성명을 통해 “허리케

인 멜리사가 자메이카를 강타해 수만 가정이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깊이 애도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팀은 폭풍이 상륙하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예수의 이름으로 자메이카 국민과 구호팀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투입된 정수 시스템은 최대 1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허리케인으로 초기에 구호품 반입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킹스턴 국제공항의 운항이 재개되면서 구호 물자 수송이 점차 원활해지고 있다.

사마리아인의지갑은 자메이카 보건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지 교회 250여 곳과 함께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주민들에게 식수, 주거,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콥트 기독교 단체 “성 카타리나 수도원 보호하라”… 국제사회에 긴급 호소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 인권 단체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인 성 카타리나 수도원(St. Catherine's Monastery)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인권단체 콥트 솔리더리티(Coptic Solidarity)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집트 정부가 시나이 산 기슭에 위치한 1,500년 된 수도원의 통제권을 수도원의 수도사단 ‘시나이 형제회(Brotherhood of Sinai Fathers)’로부터 넘겨받으려는 합의를 추진 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 초, 이집트 법원은 수도원이 자라한 토지의 소유권을 수도원에서 이집트 정부로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단체는 이번 조치가 수

도원의 독립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콥트 솔리더리티는 성명에서 “이러한 조치는 수도원의 자치권을 완전히 빼앗고, 국가의 관리 아래 두게 될 것”이라며 “일단 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고, 자치는 단순한 상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콥트 솔리더리티는 엘아나니 전 장관이 재임 당시 “카이로의 역사적 묘지 일부를 철거하고, 성 카타리나 수도원 주변에 대규모 관광 개발을 추진해 유산의 원형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단체 대표 캐롤라인 드로스(Caroline Dross)는 성명을 통해 “보호 유산을 파괴한 인물이 이제 그 유산을 지키는 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은 도저히

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유네스코의 도덕적 신뢰성과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수호 의지를 시험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콥트 솔리더리티는 유네스코뿐 아니라 바티칸, 유럽연합(EU), 미국 등 국제사회에 성 카타리나 수도원의 역사적 자치권을 지키고, 이집트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 카타리나 수도원은 6세기경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운영 수도원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도원은 수세기 동안 독립적인 종교 공동체로 인정받아 왔으며, 그리스 정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미경 기자

동북아중심도시 **창원**

창원특례시

2025년! 동북아 중심, **도약**과 **비상!**

미래 50년 혁신성장 가시화를 통해
동북아 중심으로 **거침없이 비상하는 창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CHANGWONSPECIALCITY



자원영토 확장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나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동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 광범위한 석유탐사를 추진해 자원영토를 넓혀 나가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원자력 잠수함 자체 건조 추진 공식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동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스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 아닌 한국 내 건조 비용 대비 효용 고려한 현실적 추진 방침”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사업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 내에서 자체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위 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원자력 잠수함 개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감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의 실

효성과 막대한 비용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필리핀에서라면 운용한다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작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비용도 상당할 텐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여러 염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감안해 현실적이고 비용 대비 효용이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작전 환경과 수요에 적합한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계

획”이라며 독자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필리핀소스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조선소에 건조를 의뢰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자칫 환상 속의 자주국방 추구로 흐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위 실장은 “자주 국방을 강조한다고 해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여전히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능력을 중시하지만, 그 틀 안에서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목

표로 추진 중인 전략적 무기체계 개발 구상 속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형 핵잠 개발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독자적인 방위 역량과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한미 원자력 협정 등 국제적 제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해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잠수함을 원자로 기술 개발, 안전성 확보, 그리고 핵확산 방지 체제와의 조율 등 다층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언은 독자적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용국 기자

안규백 국방장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지연 배경 설명

“원자력 추진 잠수함 조율 중… 조만간 결과 발표될 것” 전망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가 예정됐던 관세 및 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양국 간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발표 지연의 배경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개발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목했다. 안 장관

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내 여러 부처 간에 조율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원잠 협력이 이번 한미 간 협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임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이어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기술 협력 수준에 대해 “전체 건조와 원자로 제작은 한국이

담당하고, 핵연료는 미국이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수준에 다다랐다고 듣고 있으며,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기술력은 연료만 확보된다면 완성 단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보통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지만, 한국은 단축된 기간 내에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원잠 건조 장소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국내 추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필리핀소스는 관련 설비가 충분하지 않지만, 국내 기술력은 이미 완비돼 있다”며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합

리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내 독자 건조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발언으로, 원잠 개발이 해외 의존이 아닌 국내 기술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 장관은 미국 측의 협력 의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원잠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한미 간 군사 기술 협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은밀성이 높아 어느 방향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김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전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나 ‘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 방위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한미 방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2028년까지 6개 구성군 사령부 체제가 완성되면 한미 연합 방위 구조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국 기자

노사, 정년연장 합의 불발… ‘65세 법정 정년’ 놓고 팽팽한 대립

노동계는 연내 입법 촉구, 경영계는 재고용 주장
결정은 정치권으로 넘어가

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공은 정부와 여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9일 현재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연내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입법 추진을 약속하며 노동계 요구에 호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시간을 끄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추가 협의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경사노위는 지난 5월 공익위원회를 통해 ‘계속 고용의무제’를 제시하며 입법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했지만, 노동계는 해당 안이 정년 유지 수준에 머문다면 경영계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과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모습. ©뉴스스

한편 민주당 특위에서도 7개월 동안 노사 협의가 진행됐지만, 법정 정년 상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경영계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측과의 연내 합의는 어렵다고 보고, 이제는 정치권과 직접 협의할 것”이라며 “결정권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노사 입장은 충분히 확인됐으며 더 이상의 접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노총을 찾아 노동계의 ‘연내 입법’ 요구를 청취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의 실거에서도 “노사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는 18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년연장안이 상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고용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노동계 모두 단계적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경영계 주장이 반

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핵심 과제는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일자리 문제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층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연장을 시행했다면 2016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평균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현실적인 과제로 지적되는 이유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논의는 결국 노사 협의의 단계를 넘어 정치권의 결단을 기다리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약을 이행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층 고용 위축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이내래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짹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시험 7일 후, 연내 적용 시범 결과 (시범기간: 2023.01.25~2023.03.10) (시범대상) 52인 여성 30명 (시범기관) (주)글로벌뷰티연구소]

청년층 ‘쉬었음’ 인구 급증… 통계 착시 속 고용시장 불균형 심화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청년 체감 고용은 악화…
전문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 시급”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현실은 다르다. 취업도 구직도 공부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겉보기에는 고용지표가 개선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청년 고용의 질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했다고 답했고, 이런 현상이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3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16.3%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의 ‘쉬었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연령대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34.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다른 연령대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쉬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거리 부족”을 이유로 든 응답도 9.9%로 0.7%포인트 상승했으며, “복합 준비나 휴학” 등의 사유도 10.9%에서 13.7%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쉬었음’ 청년층의 증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일자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청년층이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비정규직단기저임금 일자리가 주를 이루는 현실에서 많은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노동시장 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년 이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20.4%였으며, 그중 20대는 43.4%, 30대는 46.5%로 높은 수



치를 나타냈다. 이는 상당수의 ‘쉬었음’ 청년들이 언제든지 일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쉬었음’ 인구의 증가가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률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청년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실업률 하락 요인 중 약 71%가 20대 ‘쉬었음’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20대 쉬었음 인구가 지금보다 완만히 늘었을 경우, 현재 실업률은 최대 0.7%포인트 더 높았을 것”이라며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고용 호조에 대한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쉬었음” 청년은 단순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잠재적 구직자에 가깝다”며 “이들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이자, 장기적으로 경제 생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

층의 노동시장 이탈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구직을 포기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축소되는 인적 자원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쉬었음’ 상태의 청년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실업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나래 기자

북미 첫 ‘한류박람회’, K-뷰티·K-소비재로 현지 시장 공략 본격화

한류 열기, 소비재 산업으로 확장…

코트라 “문화와 산업 잇는 수출 플랫폼으로 키울 것”

북미 지역 최초로 열린 ‘한류박람회’ 현장은 K-뷰티 제품을 체험하려는 현지 소비자들과 바이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장품을 손등에 테스트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K-팝 무대에 환호하는 관객들로 행사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뉴저지 아메리칸드림몰에서 ‘2025 뉴욕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류의 열기를 소비재 산업으로 확장하고, K-콘텐츠와 연계한 수출 촉진을 목표로 기획됐다. 국내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 100여 곳과 미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의 바이어 235개사가 참여해 북미 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행사장에는 한국 제품을 체험하려는 현지인들의 긴 줄이 이어졌고, 북미 전역

에서 온 바이어들은 “품질이 기대 이상”이라며 K-브랜드의 경쟁력에 주목했다. 이번 박람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규제 강화와 한국산 대체 수요 확대 흐름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K-소비재의 북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지다.

6일 열린 B2B(기업 간 거래) 수출상담회에는 월마트, H마트, 북미 최대 아시아 식품 플랫폼 위아(Weee) 등 주요 유통업체 바이어들이 참여해 부스를 직접 둘러봤다. K-뷰티, K-푸드,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품목의 상담이 진행됐고,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계약 의향서를 주고받았다. 대한제분, 매일식품, 정샘물뷰티, 아이코닉스, 케이타운포유 등 참가 기업들은 K-콘텐츠와 연계한 브랜드 스토리텔링으로 주목을 받았다. 수출 경험미

적은 기업들을 위해 9개 전문 무역상사가 지원에 나섰으며, 기업당 평균 10건 이상의 바이어 미팅이 진행됐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여성 바이어는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며 “주변에서도 K-콘텐츠를 통해 한국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LA 지역에서 한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교민 바이어 애슐리 전 씨는 “2017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유럽, 호주, 두바이 등에서도 주문이 온다”며 “현지 소비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7일부터 8일까지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온오프라인 연계(O2O) 판촉전이 이어졌다. 한류 공연과 팬사인회, 메이 크업쇼, 체험 이벤트가 연이어 열렸고, 현지화사·태민 등 홍보대사들이 무대에 오르자 쇼핑물 전역이 환호로 들끓었다. H마트, 윌타리움, 이베이, 케이타운포유 등 주요 유통망 입점 상담회와 온라인 기획전도 동시에 진행돼 시너지 효과를 냈

다.

코트라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한류 마케팅을 수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연 1회 개최 중인 한류박람회를 2030년까지 연 4회로 확대하고, 롯데 ‘브랜드 엑스포’, CJ ‘케이 콘(KCON)’ 등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인증 취득 지

원(최대 1억 원), 공동물류센터 확충(2025년 302개 → 2030년 400개), 글로벌 온라인 입점 확대(2030년 3000개 목표) 등 세 가지 지원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한류 소비재 수출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식품이 전체의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은 K-콘텐츠의 인기를 발판으로 수출 다변

화에 성공했다. 반면 패션 분야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해외 바이어의 방한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홍은혜 기자



미국 뉴저지주 아메리칸드림몰에서 열린 ‘2025 뉴욕 한류박람회’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판촉전에 참가한 아트박스 관계자들이 한복을 입고 관람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일(현지시간) ‘2025 뉴욕 한류박람회’ 기념 공연을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현지 한류팬들 모습. ©뉴시스

한국, G7 국가 중 중간재 교역 비중 1위… 반도체 의존도 심화 우려

수출국 다변화에도 품목 집중은 가속화…

경총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 필요”

한국의 중간재 수출입 비중이 주요 선진국(G7)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출 대상국은 다양해졌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면서 교역 구조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G7 국가 중 중간재 교역 비중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 수입에서의 비중은 50.5%로,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이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반도체, 2차전지, 석유제품 등 중간재 형태로 가공한 뒤 이를 다시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

요 G7 국가는 자동차, 항공기, 의약품 등 완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과는 교역 패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경총은 최근 5년간 한국의 교역 구조가 일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의존도는 줄었지만, 미국과 대만 등으로의 수출 비중이 늘면서 수출국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확대는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증가와 맞물려 있으며, 미국 내 생산 공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품목별로는 오히려 집중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프로세서, 컨트롤러 등 반도체 품목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수입에서도 반도체와 천연가스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

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 한국의 전체 교역 구조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러한 구조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마중 갈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외부 리스크로 인해 수출 감소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간재 중심의 산업 구조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특정 국가나 품목의 변화가 곧바로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안정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나래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우리 아이에게 ‘털없는 원숭이’라 부르는 망령된 교육으로부터 자녀를 구출하라!

노휘성 소장
에스티칭연구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순전하다. 어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순결할 수는 없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라 그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일은 영원토록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들이 날마다 접하는 교육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 쓰인 내용이라도 지금 우리의 발전된 생각에 맞춰 새롭게 해석해야 할 고대 문서라는 불신앙을 심는다.

◆내 아이에게 누가 감히 ‘털 없는 원숭이’라고 부르는가?

“저는 오랫동안 동물과 인간을 연구해 온 동물학자입니다. 수십 년 전, 인류의 기원을 새롭게 바라본 책 《털 없는 원숭이》를 썼지요. 동화나 모험담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가장 어린 ‘털 없는 원숭이’인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첫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서대문자연사박물관 고시 제2025-36호, 포스터 글, 2025년 10월 31일 게시)

이 경악스러운 포스터의 홍보글을 보라!
진화론자들의 열심은 기원에 관해 물질적인 연구를 위한 가설 설정과 그 가능성을 탐구해 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기원코 다음 세대들의 정체성을 진화의 관점으로 바꾸길 원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들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화론적 답을 수용하고 실천하기를 장려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교육을 통해, 문화를 통해 장려하고 권장하다가 법을 제정한다. 그것이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먹히면, 연령을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유포하며 세계에 대한 논리의 틀을 갖추기 전에 아예 아이들의 정서를 진화에 친화적하도록 만든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진화론을 정당화 이론으로, 과학적 사실로 배우고, 다양한 문화 행사로 진화론적 전시물들을 접하고, 영상과 책들을 통해 그 정보들이 강화되도록 세상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털 없는 원숭이》이 책은 1967년에 데즈먼드 모리스에 의해 쓰여졌다. 이 책이 대중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 당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영장류의 한 종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는 주관적 오만함을 버리고 당신 속에 잠들어 있는 영장류의 본능대로 사십시오’ 이다. 진화론자들은 다윈의 유산을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드러지게 확대 재생산하여 후대에게 강력하게 물려주는지 모른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이 책의 어린이판 출간을 기념하여 특별 강연을 열고, e-알리미와 같은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을 통해 행사를 홍보한다.

게다가 《어린이를 위한 털 없는 원숭이》를 강력 추천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표적 무신론 진화론자 최재천 교수이다. 그의 글이 지난 8년 동안 초등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다. 이미 우리의 5학년부터 고2까지의 자녀들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으며 문해력 향상을 위해 단어 찾기 해가면서 배웠다.

최재천 교수의 사상이 우리나라 전국민이 그것도 10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할 건전하고 보편적이며 교육적인 것 맞나? 최재천 교수의 글에 의하면, 바퀴벌레는 지구촌 주인으로 인간보다 한참 위의 조상이고, 우리가 바퀴벌레를 때려 잡으면 공격해야 할 어르신을 흡인 두들겨 뺏 것이 된다.

“인간은 지구의 막내예요. 최초의 생명체가 수십억 년에 걸쳐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종일 뿐이지요?”(2015개정교육과정, 초등 4학년 국어 교과서 지문, 글: 최재천)

세상도, 동물도, 인간도 오직 진화적 관점으로만, 유물론적 관점으로만 보게하는 세뇌교육! 그 정도가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심각하게 편향적이다. 진화론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단세포 생물의 출현도 설명하지 못하는 가설이다. 단세포는 커녕, 기능적 단백질 한 분자도 지적 존재의 인도 없이 무작위적인 화학반응으로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 분자생물학이 드러내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진화 메커니즘의 부재와 증거적 취약성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진화를 신봉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베스트셀러로, 교과서로, 공격 기관의 추천과 알리로 마구 퍼날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중국에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란 말인가? 창조를 지우면,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알파한 전술! 그들의 속내는 세상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대로 장악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세속적 이본주의로 마음껏 요리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선도 악이 되고, 악도 선이 된다. “나는 소년

을 좋아했다”는 유발 하라리의 인터뷰 내용에는 그러한 진화론자들의 윤리적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성애가 있다. 침팬지가 그 한 예다... 영장류의 섹스는 처음에 번식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우정과 친밀감 구축,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섹스한다.”(유발 하라리와 조산일보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 아이들을 ‘털없는 원숭이’라고 부르고 싶은지 보이는가? 그라야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이 살아도 된다는 윤리관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이 왜 침팬지를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배우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진화론이 사실이고, 그래서 인간이 우연히 출현한 생물종에 불과하면 그런 관점은 합당한 것이 된다. 결국 이 모든 시도는 인간 스스로가 ‘죄’가 무엇인지 정하고 싶은 의도에 닿아 있다.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하려면,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려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 모든 거짓말이 참이 되려면 창조가 아니라, 진화여야 한다. 그라야 하나님의 법이 무력화된다.

◆‘바사르’를 키우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됴라...”(창 6:2-3a)

김지찬 교수는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 가라》에서 ‘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고 있다.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살덩어리를 뜻한다. 성경에서 ‘바사르’의 용례는 인간의 몸,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성기 등으로 쓰였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절에서 ‘바사르’는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에 비추어 “육신이 됴”의 뜻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없이 오직 몸의 필요와 쾌락만을 추구하며, 특별히 성적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본능적 상태로서 “동물이 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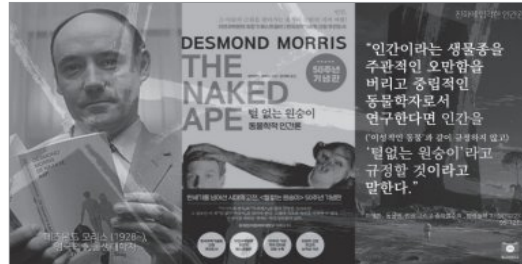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 37-39)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사람들이 ‘바사르’가 되어 동물적인 삶을 산다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동물의 한 종으로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



서대문자연사 박물관에서 무료로 여는 강연, 책 제목부터 포스터에 있는 글귀까지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진화론을 노골적으로 아이들의 존재에 이입시키고 있다. 이 행사를 학부모들에게 e알리미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지나치게 무신론 진화적 관점의 책과 강연이 대단히 권장할 것처럼 왜곡될 우려가 크다. ©노휘성 소장 제공



도서 ‘털 없는 원숭이’ ©노휘성 소장 제공

문이다. 자신이 ‘바사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진화된 생물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 나름의 일관성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바사르야.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수십억 년 진화의 산물에 불과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모든 짐조는 심판을 향해 가고 있으나 자신이 심판의 대상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교육과 문화로 뒤덮인 시대 한 복판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다.

◆진리만이 답이다

진화론에는 첫 사람 아담이 없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진화론에서는 죽음의 죄의 삶이 아니고 ‘자연 현상’이다. 인류의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존재하기 전 수

십억 년 동안 이미 죽음과 멸종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진화론 세계에서 인간은 죄의 댓가를 치를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죄값을 속량받는 ‘구속’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사람의 전통 즉, 인간 문화 유산의 계승만 있을 뿐이다. 성경은 이를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 2:8)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포스터에 있었던 글귀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가장 어린 ‘털 없는 원숭이’인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첫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은 분명하다.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더욱 선행하게 더욱 열정적으로 가르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 진화론 시대에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바사르’로 길들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경성하여 올바른 창조신앙을 교육해야 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명은 자연발생한 적이 없다. 생명은 언제나 생명으로부터만 나온다. 이는 미생물부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모든 생물과 인간까지 예외없이 적용되는 사실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부모로부터, 또는 모체로부터 나왔기에 첫 조상은 반드시 창조되었어야 한다. 다양한 생명체들의 첫 조상이 처음부터 완벽한 계보를 갖춰 암수를 짝지어 번식 가능하도록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창조’ 뿐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처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3-4)

우리 자녀들이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려면, 망령된 진화론의 속임수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세상에 널려 있는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진리는 거짓으로 덮이지 않지만, 진리를 교육하지 않으면 가짜에게 영혼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미혹이 많은 시대, 진리의 허리 띠를 띠고 믿음으로 이기는 세대를 키우는 그 시작이 창조신앙을 견고히 교육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그 기초 위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삼아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금 해인도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알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경표 선택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재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의사·한의사·선교사·신학자, 손영규 시인의 ‘바람이 머물다간 자리’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조덕영 박사의 기독교 시인을 만나다

[바람이 머물다간 자리]

바람이 머물다간 자리
사랑이 심겨지고

사랑이 머물다간 자리
소망이 싹트고

소망이 머물다간 자리
믿음이 열매 맺으니

정녕
성령은 바람이여라

주님 보내신
그 바람이여라

- 99. 6. 7. 한울교회에서

惠民 손영규 시인(사진)(1953~)은 경북 경주생. 경희대 의대 및 대학원을 졸업한 의학박사(M.D., Ph.D.)이다. 동·서 의학에 관심을 가져 미국 LA에서 삼라한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한의사(O.M.D) 면허를 취득하였다. 동서양의학과 선교 그리고 전인치유사역에 대한 탐구의 결과, 일반 은총으로서의 한의학과 성경의 조화를 이끌어낸 ‘가독교적 관점에서 한의학 들여다보기’라는 치유사역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려는 간절한 마음 속 『황제내경과 성경』(예영 커뮤니케이션, 2014)이라는 독창적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손 시인은 이바인후과 전문의로 선교사로 부름 받아, 여러 신학공부를 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 안수를 받고, 총회세계선교회(GMS) 파송으로 2001년 동아시아에 파송돼 사역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서 GMS 선교사 의료 멤버케어를 총괄하기도 했다.

의사·한의사·선교사·신학자의 삶을 산 시인은 ‘慶州人’이라는 시에서 ‘15년 동안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가서 고등학교(경복고)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살다가, 외국에서 살다가 45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회상한다.

노년이 되어 고향에서 소망이바인후과 의원을 연 손 목사는 경주기독교사회 지도목사 및 한국누가회 ‘세교회’ 협동목사를 거쳐 충효중앙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 공로로 지난 2024년 제36회 경주시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주시는 손 목사가 2020년 세종도서관으로 선정된 <코리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집필한 것에 이어 극빈자,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실천, <황제내경과 성경> 집필

로 세계 오지를 향한 무료봉사 한의사 증가에 기여, ‘총체적 치유사역’ 등의 논문을 통해 사회적 치유 개념 확산 등에 공적이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손 목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외할머니로부터 순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랐다고 했다. 주님의 은혜로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기에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주님 말씀 따라 살다간 한국 초기 의료선교사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사모했다고도 했다.

그는 1884년부터 불기 시작한 성령의 바람은, 1907년에 온 평양을 휩쓸고, 1914년에는 전국을 휘돌아 불었다. 이 첫 30년 기간 동안, 성령의 그 바람 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백성을 사랑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 주어 가꾸어 간 분들의 삶의 이야기 듣기를 늘 좋아했다. 우리 주님 앞서 가신 그 험하고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며, 그분들이 함께 부른 노래, “코리아, 그대는 아직도 내 사랑!”을 우리 함께 부르며, 코리아를 넘어 열방으로 나

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했다.

그런惠民이 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손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시집 한 권 가지는 것이 꿈이었으며 고교 시절 그 꿈은 커졌고, 대학생 시절 그 꿈은 더 간절해졌다고 했다. 시인 조병화 시인의 평이 실린 시가 경희대 학교신문에 실리며 그 꿈은 용기로 바뀌었으며 제 22회 계간 국제문학 시인작가상 운문부문 시당선으로 등단했다. 모세, 드보라, 다윗, 솔로몬처럼 손 시인은 믿음의 시인이요 보통의 시인들이 유사하게 걸어온 시인의 여정을 지나온 셈이다.

김성구 박사(시인, 문학평론가, 국제문학발행인, 철학박사)는 손 시인의 시집 『당신의 사랑』 평전에서 ‘은혜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천상의 꽃향기’라는 제목으로 손 시인의 시에 대해, 계절의 변화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한 목사의 자녀였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1946) 헤르만 헤세에 빗대어 손 시인의 시도 ‘자신의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했다고 썼다. 특별히惠民의 시에는 ‘성령을 삶의 텍스트로 설정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려는 온 정성이 보인다’ 했다.

그렇다!惠民의 시에는 손 시인 삶의 믿음의 사계절이 마치 수채화처럼 펼쳐진다. 필자는惠民의 시를 읽으며 경건, 삶, 은혜, 가족,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 고백, 주님, 세상, 치유, 은혜와 성령의 바람이 수채화처럼 번지는 감동을 그저 온몸으로 받는 느낌이었다.惠民은 살아온 것이 모두 감사요 믿음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감사요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것이 감사요 선물로 받은 믿음의 두 아들이 모두 목사가 된 것이 감사라 했으니 김성구 박사의 표현처럼 시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정원을 가꾸는’ 하나님께 복된 사람의 여정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필자는 존경하는 손 박사께서 건양대 의대 대학원 치유선교학과 주임교수로 있을 당시 치유신학을 강의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늘 은혜의 향기를 날리고 열매 가득한 풍성하고 거룩한 사제들의 삶이시길.

자유주의 신학의 발호



김병구 장로
바른그원관 선교회

1.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와 본질

자유주의 신학은 18~19세기 유럽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태어났다. 인간 이성과 경험을 절대화하고, 성경의 초자연적 권위를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역사적 인물의 상징’으로 축소시켰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사상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으로, 결국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인 아닌 인간에게 옮겨 놓았다. 이 사조가 미국과 한국의 신학교에 스며들며, 복음의 초자연적 진리를 부정하고, ‘윤리적 인간주의’와 ‘사회 정의’ 중심의 복음으로 대체되었다.

2. 교회의 좌경화: 복음의 왜곡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된 교회는 점차 성경적 진리를 잃고 세속 정치 이념을 복음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구원의 본질인 죄와 회개, 십자가와 부활을 외면하고 사회운동과 평등 담론으로 대체했다.

그 결과 교회는 영적 권위를 잃고, 좌파 이념과 인본주의에 동화되어 세상의 조종거리가 되었다. 복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심자’의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정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3. 적그리스도 정치세력의 부상

성경은 말세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를 미혹하고 세상을 통제할 것이라 경고한다(요한일서 2:18, 데살로니가후서 2:3-4). 자유주의 신학과 좌경화된 교회는 바로 이 세력의 영적 발판이 된다. 진리 대신 다원주의를, 구원 대신 포용을 외치며, 죄를 죄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적그리스도의 정치세력은 ‘사랑과 평등의 언어’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며,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상대화 한다. 오늘날 서구 사회와 일부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 경고의 성취로 드러나고 있다.

4. 깨어있는 성도들의 사명

이 시대의 성도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영적 분별자로 서야 한다. 자유주의 신학의 미혹을 분별하고, 좌경화된 세상 속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교회는 다시금 초대교회의 순결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무장해야 한다.

APEC 회의를 보고서(1)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얼마 전 경주에서 아세아 태평양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와서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점은 트럼프-이재명 회합이었고 시진핑-이재명 회합이었을 것입니다. 트럼프와의 회합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생존 문제가 걸린 한미 동맹 관계에 균열이 올라 염려 되어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합의 결과가 아쉬운 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 다행이란 마음이 듭니다. 이번 트럼프-이재명 만남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 데에는 유관 부서의 장관, 차관들이 지혜롭게 열정적으로 한국의 국익 우선으로 임하였기에 얻어진 열매라 여겨집니다.

특히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이 프로답게 회담을 주도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있었다는 소문입니다. 트럼프가 출국하기 전 마지막 모임에서 김정관 장관을 칭찬하면서 <He is tough, an incredible Negotiator>라고 칭찬하였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고급 관료들 중에 이런 인재들이 있다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 장래에 희망을 품게 하여 줍니다.

이번 한미 관계 협상의 자세한 내용은 나와 같은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렵지만 그냥 느껴지는 바로는 몇 가지 바람직한 열매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트럼프 측에서 경우 없이 3500억 달러를 내라고 우격다짐으로 다가왔지만 실무진들이 잘 대처하여 3500억 달러를 내되 1500억 달러는 조선 사업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고 2000억 달러에 대하여는 200억 달러씩 10년간 분할하여 내기로 한 점은 참으로 잘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가장 잘된 합의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한미 간에 합의된 점입니다. 핵무기에 대한 이런 시적이 장차 한국의 안보 지형을 강화하는 데에 다짐들이 될 것입니다.

From Deep Dark to Bright Hope (어둠에서 빛으로)



성종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교회

인생에는 밝을 때, 어둠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때와 일들을 주님이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어둠의 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낙심해서는 안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듯, 인생이 힘들 때일수록 더 믿음과 소망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사랑, 소망은 세상의 것들에 의해 삼켜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소망과 생명의 빛이고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성도의 할 일은 소망을 전하고 심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벧전 3:15).

감사한 것은 지식, 은사, 비전은 사라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기 때문

에 철쭉 같은 어둠,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한 성도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자들 굴에 던져진 다니엘,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 하사나, 미사엘, 아사라에게 인자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의 소망을 꿀 것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꿀 것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깊은 어둠, 절망의 속에도 빛과 생명과 소망되시는 예수님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칩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에 활줄, 살과 생기를 대언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롬 15:13).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성도입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매일 먹는 마늘, 오늘부터 153새싹마늘로 바꿔보세요!

화학비료&병충 ZERO

물고기와 식물의
공생 시스템으로 키운
100% 친환경 새싹마늘입니다.

영양소의 극대화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해
높은 영양가와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

물 사용량 및 농업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사람에게
건강한 농법입니다.

특허받은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식

깨끗한 물에서 화학비료와 병충해 없이
건강한 새싹마늘만을 키우는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허번호 : 제10-1581729호

제품 구매하러 가기 →

153새싹마늘 스마트스토어

N 153 새싹마늘

구매
문의

070-7895-1597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류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 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류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의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 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 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 5층(INCS평생교육원)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번.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 ③

「바른예수신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차는 철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절대 이지」의 신으로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담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배우고자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그리스도인들이 대축제로 지키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노래 부르며 찬양하지만, 정확한 「예수」의 생일,을 아는 사람은 없지요.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탄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니가 어느 날을 정하여 특별히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을 해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 더욱 큰 뜻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 속에서 태어나셔야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생의 모든 날이 「성탄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 년 중 하루, 12월 25일만을 「성탄일」이라고 믿고, 그날만 그리스도의 강생을 축하하는 교인들은 참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유명 정치인은 평소의 생활(정치 행위 등)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게 많이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가 하면, 불교 사찰에 가서는 「부처님의 은덕으로 이만큼 출세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성탄절에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짜 신앙인일 뿐입니다. 거짓 신앙인들이 소위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도자」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을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거짓 지도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정치계요, 종교계, 특히 교회 사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만 소경」이 된 채 민중을 지도한다면 민중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신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성원계좌 :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 010-8913-7777
· 한샘교회 :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투데이

추천사

장로님께서 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날 새부터 가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부흥의 중요성 (3)

이것이 바로 수년 동안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서글픈 신앙 상태였습니다 (때때로 긍휼의 소나기가 내렸던 특이한 한두 장소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 밖에 다른 마을들과 교회들은 그러한 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실한 교역자들과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했던 것과 같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쿠퍼가 말하는 것처럼 산발적인 역사는 있었습니 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가 된 그 교회는 그의 외조부 스토다드가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는 확산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완전히 끝나 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생명 없는 상태를 지속해 왔습니 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 다. 가뭄 후에 소나기가 쏟아진 것입니 다. 생명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소한 100년 동안, 아니 실제로는 오늘날까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 40여 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주목하면 매우 놀랍습니 다. 제 체험에 비추어서 그 점을 예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27년 목회 사역에 들어가기 직전, 옥스퍼드대학교 신학 대학에서 우등을 차지했던 제 친구 중 한 사람에게 읽을 책에 대한 도움을 구했습니 다. 그는 자신의 학위를 위해서 읽었던 매우 많은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맥키퍼트라는 사람이 쓴 칸트 이전의 프로테스탄트 사상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유일한 인상은 조나단 에드워즈라 불리우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주로 철학자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더 읽을 만한 것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말해 주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가 한 일에 관해서 제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후 우연하게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 두 권을 만나게 되어 5달러를 주고 샀습니 다. 저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속에 나오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 두 권이 제게 끼친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930년대 초반에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이 놀라게 되살아났습니 다. 페리 밀러는 이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책이 여러 권씩 나온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설교 원고를 훑어보느라고 예일대학에서 에드워즈의 전집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전집을 말입니 다. 저는 1967년, 두 사람을 만나서 이 위대한 사람의 설교 원고들 중 몇 편을 다루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최근 베너 오브 트루스 사가 발행한 두 권의 책이 흔히 전집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860년대에 그 두 책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른 수

많은 자료들이 포함된 한 책을 출간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설교들과 서간문들과 때때로 비방묵식으로 적어 놓은 글들과 수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전집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뛰어난 사실을 설명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 점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경고를 하려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새로 출판된 책들을 읽을 때 매우 조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영문학 교수들이 쓴 책도 있고 철학자들이 쓴 책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상가로서 또는 위대한 작가로서 또는 미국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으로서의 에드워즈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영문학에 있어서 낭만주의 운동을 일으킨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또는 부지중에 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읽을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여 년 전에 죽은 이 놀라운 사람이 지난 19세기 내내 계속 영향을 끼쳤던 것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사상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갈래입니 다. 예를 들어

서 올리버 홈즈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박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후대의 지각을 흔들어 놓을 언어”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에드워즈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의 신조는 온화해지고 인간다워졌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에드워즈는 “아침 식탁에 앉은 독재자”가 쓸 그런 류의 작품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드워즈가 그러한 사람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드워즈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올리버 홈즈라는 휴머니스트가 바라는 대로의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20년대 초반 스코프스가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윌리엄 브라이언과 저 유명한 “원숭이 재판”을 벌이자, 과학 교사인 스코프스를 변호한 클라렌스 다로우는 이렇게 썼습니 다. “에드워즈가 세상에서 한 일은 주로 어리석은 아녀자들을 겁주고 자기가 섬긴다고 고백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혼동되었거나 병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야 어찌 그와 같이 ‘진노의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진노의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에드워즈의 설교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 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은 TV나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설교를 적잖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에드워즈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

러나 에드워즈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 설교를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버 홈즈의 말을 통해서 들었듯이, 그 설교는 지각을 공격하고 습격한 것이요, 이성을 억누른 폭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어느 누구보다도 폭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오해받기 쉬운 이른바 매우 강하고 매우 충격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에드워즈 자신이 이 특별한 비평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부 사역자들이 크게 비난받고 있는 또 한 가지 사항. 나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은 그들이 이미 큰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 하기는커녕 그들에게 공포스러운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역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사실보다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면 그때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역자들이 더 많은 빛을 비추고 진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일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양심이 크게 각성을 받는 것은 비추어진 빛 때문인데, 이 빛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바이블지식IN

구약성경의 믿는 자들은 죽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었나요?



구약성경은 사후의 삶이 있으며, 모든 죽은 사람들은 스올이라 불리는 의식이 있는 존재의 장소로 갔다고 가르칩니다. 사악한 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사편 9:17, 31:17, 49:14, 이사야 51:4), 의로운 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7:35, 욥기 14:13, 시편 65, 16:10, 88:3, 이사야 38:10).

신약성경에서 스올과 동일한 것은 음부입니다. 누가복음 16:19-31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음부가 나사로가 있었던 위안의 장소와 부자가 있었던 고통의 장소인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3절의 hell(음부)이라는 단어는 Gehenna (계한나 :영원한 고통의 장소)의 번역이 아니고, Hades (하데스 :죽은 자들의 장소)의 번역입니다. 나사로의 위안의 장소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Paradise(낙원)” (누가복음 23:43)으로 불립니다.

음부의 이 두 영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누가복음 16:26)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하신 후에 음부로 내려오셨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7, 31; cf. 에베소서 4:9).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음부에 있던 믿는 자들 (예: 낙원의 거주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낙원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2-4).

오늘날, 믿는 자가 죽게 되면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6-9). 믿지 않는 자가 죽게 되면, 구약성경의 믿지 않는 자들을 따라 음부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음부의 거주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 음부로부터 모두 나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13-15). 갓케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1 Timothy 3:5 NIV
(If anyone does not know how to manage his own family, how can he take care of God's church?)

- anyone : (조건문에서) 누군가
- manage : 다스리다, 관리하다
- take care of : ~을 돌보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만약 누군가 자신의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한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승 칼럼 영원한 안식의 확신과 그 근거

날마다 말씀 따라 새롭게(112)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시 23:6)

시편 23편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하는 확신으로 끝난다. 여기에서의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성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소를 가리킨다. 유목민의 초라한 천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 이것은 성전의 중요성이 외적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보여 준다.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 곧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것이다. 신앙 자체

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면서 영원한 안식의 미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현실과 이상, 실제와 소망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삶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고백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확신은 어떤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일까?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니다. 시편 23편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시편 23편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감사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다.

‘선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투브’이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좋은’ ‘선함’ ‘유익함’인데, 여기에서 ‘유쾌함’ ‘호의’ ‘옴’ ‘행복함’ 등의 다양한 의미가 파생되었다. 또한 이 단어는 실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용례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투브’로 표현된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신다는 뜻이다(사 63:7; 시 25:7; 시 145:7; 느 9:25).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

하심은 관대하심이나 구원의 감격을 배풀어 주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이다. ‘헤세드’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 ‘자비’ ‘사랑’ ‘친절’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헤세드’의 기본적인 의미는 약속에 대한 성실성,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 주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영어성경에서는 ‘헤세드’를 steadfast love(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실패시키지 않는 사랑), lovingkindness(자비로운 사랑), mercy(자비)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의 동반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 관계를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역사 속에서 계속 유지되어 온 근거이기도 하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헤세드’는 신약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여호와와 ‘선하심’은 이스라엘에게 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것으로 구체화된다(신 7:6-8).

그런 반면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의 언약관계가 유지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공적 덕분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곧 하나님의 ‘헤세드’ 덕분에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근거이며,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확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와 집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묵상책갈피

성령의 성전

본지는 [묵상 책갈피] 코너를 통해 신앙도사에서 은혜롭고 감명 깊은 내용을 선택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1. 요한복음 4:24에서 영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은 요소로서 인간은 영을 통하여 거룩한 세계와 교통할 수 있다. 영은 자기통제의 자리이며 잠된 예배가 거행되는 곳이다(롬 1:9).

“나는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 고데(Godet)

2.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그들의 심각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호소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여러 차례 설득하는 것을 주목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설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모든 신자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육신에 속한 저급한 삶으로부터 떨치고 나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모든 신자에게 이 지식을 전해 주기 위해 애쓰자. 그것은 그들의 하늘 상속권이다.

3. 몸이 곧 성령의 성전이다(고전 6:19). 만약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이는 몸에서도 또한 밝히 드러날 것이다.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몸에 충만하고 우리의 몸을 수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 그분을 섬기게 하려고 특별히 오셨음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몸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것을 살아있는 씨앗으로 만들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

4.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는가? 온전하고 분명하며 변함없이 알고 있는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가? 당신은 깊은 자각 가운데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니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하고 가까이 대답할 수 있도록, 충만한 체험 가운데 그것을 알고자 진력하고 있는가?

앤드류 머레이 「그리스도의 영」 크리스천다이제스트 P212-213

강지윤 칼럼 가을 힐링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향기가 달라졌습니다. 숲 너머의 강물 빛깔도 달라졌습니다. 강물 위의 하늘은 형언 못할 빛으로 펼쳐져 바라보지만 해도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듯합니다.

무덤덤한 지난 여름의 생채기들을 지우는 힐링의 계절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동의 땀샘들이 닫히고 뽕송뽕송하고 맑은 영혼으로 치유되고 정화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을 치열하게 살아온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때때로 상담실 안에서 생명이 갈아먹히는 듯한 소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리상담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

그래서 회복과 충전을 위하여 종종 산으로 가거나, 바다를 보러 가거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회복력이 빠릅니다. 더구나 치유된 이들의 환한 미소 한



번이면, 그간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나누어 준 생명은 사랑. 그 사랑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제게로 다시 돌아와 저를 회복하게 해 줍니다.

마음을 열면, 가을향기는 마음 속 아픔을 강력하게 치료합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 보면, 제가 좋아하는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지천입니다. 과일 향기는 코끝을

지나 폐부로 들어가 깊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천상의 과일이라고 탄복하게 만드는 달콤한 복숭아, 탐스러운 포도송이, 한 입 베어 물면 입 안 가득 상쾌한 멜로디로 물들게 하는 빨간 사과... 그 과일들을 맛보며 저는 또다시 행복해집니다.

가을엔 더 깊이 사랑하리라는 다짐, 가을엔 사랑하겠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예전에 쓴 시의 한 토막, “채색한 하늘은 가난한 마을 어귀에서도 저렇게 설레는구나...” 저렇게 설레는 가을하늘을 내 마음에 담고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당신에게.

놀랍게도 생명을 나누어준 사랑은 다시 제게로 돌아와 저의 결핍된 마음을 채워 주곤 합니다. 그리하여 맑고 투명한 가을햇살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제 사랑으로, 그도, 누군가도, 모두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제게 먼저 생명을 나눈 사람을 주신 주님의 은총 덕분에 이 가을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갈아먹힌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가을 은총 속에서, 당신의 생채기진 마음을 다 치유하길 기도합니다. 당신을 힐링하는 향기로운 가을의 소리, 지금 듣고 계신가요?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4,240번의 연구로 태어난 스킨 허그 미스트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SCIE급 논문 등재
큰얼매 모자반
성분 함유



11가지 천연성분
레시피 함유



skin hug mist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은혜의샘물 역사는 정신에 지배된다 (2)

소인과 대인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받은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것을 따르는 자를 소인이라고 하고, 큰 것을 따르는 자를 대인이라고 한다.” 영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은 미국의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삶을 자기보다 큰 것에 바친 사람이지요.” 이렇게 대인이나 영웅은 자기보다 큰 것에 자신을 바침으로써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영웅을 헬라이어로 ‘헤로스(heros)’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반신반인(demigod)을 뜻합니다. 헤라클레스, 디오니소스, 테세우스와 같은 영웅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보다 큰 것에 자신을 바침으로써 마침내 자기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인간의 한계인 죽음까지도 뛰어넘어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존재인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와 같은 불멸의 존재가 있는가 하면, 이들 영웅처럼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영웅들의 삶은 한 귀환기가 모자란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이 영웅이 되는 필요조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고난 한계와 고

난의 세월을 경험하지 아니한 영웅의 이름을 신화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그리스의 신화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의 생애가 그렇고, 예수와 바울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타고난 한계와 고난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삶을 자기보다 큰 것에 바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를 정신과 신앙에 두지 아니하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두었던 사람들의 업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운 헬라 제국이 채 삼백 년을 넘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고, 삼백 년 가깝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도 역사가 그 흔적만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는 정신을, 명예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했던 예수의 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가복음 십이장 삼십절).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

복음 십이장 삼십일절)가 가르쳤던 예수의 나라,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의 나라는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인한 나라로 이천 년 가깝게 역사를 지배하며 역사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강한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보다 더 강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꿈을 버리고, 이상을 버리고, 미래를 버린 사람의 결국은 그가 비록 당장은 재산을 모아 잘 살 수는 몰라도 그의 삶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희망이 없는 삶이요, 미래가 없는 삶이요, 존재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유대인 라비 가운데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유대 민족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에 유대주의를 발전시켜 크게 보급한 라비입니다. 주후 육십팔 년에서 칠십 년 사이에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로마군에 대항하여 독립 전쟁을 일으켰을 당시 요한나는 온전 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경파였던 열심당원들이 군사적으로 크게 열세한데도 불구하고 로마군에 대항하자, 요한나는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민족이 역사에 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지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군의 총사령관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강경파들의 감시망을 뚫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시체를 부정하게 여겨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꾀병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나는 유명한 라비였으므로 그가 병을 앓는다는 소문과 결국 죽었다는 소문이 온 성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안에는 묘지가 없었으므로 그를 성밖에 묻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열심당원들에게 강경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요한나의 관에다 칼을 찌르려고 했지만, 라비의 시신에 칼을 대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의 항변에 부딪쳐 성문 통과를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안을 빠져 나온 요한나는 성곽을 포위하고 있는 로마군의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베스파시아누스를 처음 본 순간 그가 네로를 이어 차기 황제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황제의 예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방 한 칸이라도 좋으니, 열 명 정도의 라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되, 이 학교만은 절대로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한나는 조만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점령당하여 대량 파괴와 학살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이 훼손되어 다시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세계를 떠도는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만 있다면 유대 전통을 변함없이 전승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사령관은 요한나의 예언대로 육십팔 년에 황제로 등극되었고, 요한나의 요청대로 지중해 서안에 위치한 읍마 근처 야브네에 세워진 요한나의 학교를 파괴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비록 국가의 망에 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때 그 학교에 남아 있던 라비들은 살상을 면하여 유대 지식과 유대 전통을 지키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강한 나라들은 하나둘씩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가장 힘없는 나라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어렵고 지루한 역경과 시련을 딛고 굳세게 살아남아 결국 천구백사십팔 년에 국가를 재건하는 강인한 신앙과 정신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꿈 있는 한 사람의 라비가 가르친 민족 정신과 신앙이 역사에 이어지면서 보이는 나라가 없이도 수천 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를 요약하여 출판한 마빈 토케이어는 유대인의 자력을 ‘학문에의 집착’, ‘권위애의 도전’, ‘불굴의 정신’, 그리고 ‘자기 확립’이라고 분석하면서, 국토 없는 떠돌이 민족으로서의 설움 속에서 수천 년을 보내는 동안 유대인들로 하여금 굳건한 인고의 정신으로 그 역경을 헤쳐나가게 한 유대인 특유의 근본 사상은 바로 성경과 탈무드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이면, 고난과 가난의 상징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기도하기를, “금년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먹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먹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꿈이 바로 오늘의 유대인이 있게 한 지력입니다. 역사는 정신에 지배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제공

향유육합

피로 물든 신앙, 꺼지지 않는 증언

오늘날 전 세계 삼억 육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타고 목회자는 감옥에 갇히며 신자들은 납치와 방화, 고문과 살해 위협에 시달립니다.

지난 삼십 년 동안 박해는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흔여섯 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수준의 폭력과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피와 눈물로 기록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하 교회에서, 산속의 오두막에서,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조차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집니다.

박해는 오히려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고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더욱 깊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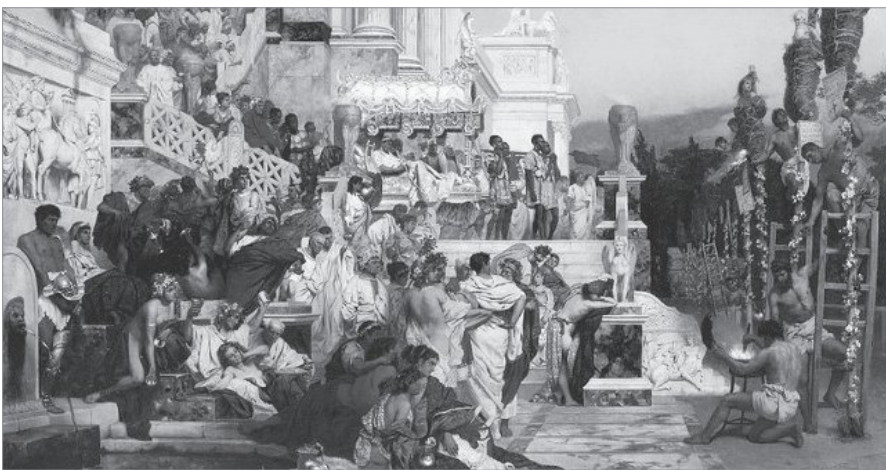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십육장 삼십삼절) 이 말씀은 피흘리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안히 앉아 있는 우리는 그들의 눈물과 피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는 하나이기에 그들의 고난은 곧 우리의 고난입니다.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역사는 증언합니다.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박해 속에서 더 깊어지고 복음은 어둠 속에서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박해의 시대, 진정한 믿음으로 서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을 입었나니”(이사야 43:10)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 산마루서신 제공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이야기하늘나라

예배를 빠지면

어떤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으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지겨워했습니다.

그는 주일 날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만 했습니다.

하루는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구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볼게.”라고 하면서 아내 혼자만 보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집에 혼자 남아 낮잠을 자다가 문득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요?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시오!”

집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며 자원해서 드리기를 거부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방대한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 흡니와 비느라스는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 예배를 통해 주님을 친히 뵈고 교제하는 일을 무한한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닷컴 제공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중에 거하십니다(사22:3).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보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기도중이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노래로 표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영으로 찬송하는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있어서 반드시 음악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물론 음악적인 행위는 우리에게 찬송의 마음을 복돋아 줍니다.
음악은 찬송을 돕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음악행위 자체가 찬송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찬송의 마음으로 연주하는 음악은 그 자체가 훌륭한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행위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고백 그 자체를 받으시고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깊이 임재하시는 찬송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찬송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히11:6).
우리가 아무리 음악적으로 훌륭한 합창과 독창 또는 관현악으로 찬송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찬송은 새 생명의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옛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직접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 종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부활한 새 생명을 영원한 삶

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드리는 찬송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직도 옛 생명의 모습에 드러나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기쁘게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도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훌륭한 외적 음악적 표현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입니다. 출처 : 다음카페 만나와 메추라기

예배 찬송에 관하여 1



음악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은 진한 감동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한다. 꼴롱보라는 위그노 음악가의 생애를 그린 그 영화에서 인상적인 한 장면은 꼴롱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에 꼴롱보가 그의 제자 마랭 마레에게 그 꼴롱 속에서 처음부터 스타카토까지의 음을 들어보라고 가르치는 부분이었다. 그 위대한 음악가에게는 자연이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음악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런 음악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는 온갖 종류의 음으로, 그 음의 운동(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그 음악은 의식하는 의식하지 않든간에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류 매장에 가면 대체로 빠른 팜송을 들을 수 있는데, 경쾌한 음악을 듣지 않았을 때보다 20%의 매상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여기에서도 음악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음악과 우리 생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데, 생활의 중심인 예배 역시 음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즉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로 시작하는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다(출 15:21). 또한 시편 기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요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찬양을 가르친다(시 33:3). 허브

리서 기자도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가르친다(히 13:15). 이러한 명시적인 가르침 때문에, 예배와 찬송의 긴밀한 관계를 부인하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어떤’ 찬송’을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면 엄청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한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전곡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꼭요찬양모임”의 영향을 받아 헤비메탈(heavy metal)을 사용하는 “복음송”(gospelsong)을 즐겨 부른다. 그 모임에서 부르는 곡들은 대체로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성에 호소하는 것들이다. 가사에 성구가 들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로큰롤(rock’n’roll)이나 팜송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로큰롤을 싫어하는 장년층은 그런 찬양이 나쁜 것이고, 심지어 사탄적이라고까지 비난한다. 반면 그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기존의 찬송가에도 예전의 “복음송”들이 많이 들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차이를 단순한 세대간의 문제로 돌려 버린다. 세월이 흐르면 그들이 부르는 “복음송”도 찬송 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찬송 책에 “복음송”이 많이 들어 있음을 사실이다. 19세기에 화가와 전도 그리고 선교를 강조하는 대규모의 부흥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화가와 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흑인 영가나 재즈(jazz)를 이용한 “복음송”을 만들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어떤 유명한 부흥사처럼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듯이 사람

을 회심시키는 법칙이 있다”
고 말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는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복음 전파도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그러한 방법론을 잘 사용하는 “유명한” 설교자 중심으로, 즉 인간적인 것으로 점차 변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심의 법칙”의 하나로 등장한 복음송도 자연히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지닌다. 화가를 강조하기 위해 세상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가사들이 애탄조의 가락이나 삼박자 품의 노래와 함께 짝을 이루기 시작했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고취하기 위해 당김음을 많이 사용하여 흥분 상태로 몰아가는 노래들이 만들어졌다. 비록 완화된 형태이지만, 후렴구가 붙은 노래들이 대체로 그런 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찬송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부흥 운동에서 선교에 헌신하고 온 사람들이다. 물론 구 프린스턴(the Old Princeton) 신학교 출신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이들 역시 음악적 소양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곡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의 “복음송”이 한국 교회에 소개되었고, 유럽 대륙의 시편 찬송 등은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몇 곡만 소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애탄조의 노래들은 일제하의 상황이나 한(恨)의 정서와도 일치하는 바가 있어, 점점 더 많은 “복음송”이 찬송가에 들어왔다. 한국 찬송가에 수록된 “복음송”의 비율에 대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최초의 악보 찬송가인 『찬양가』(1894년)에는 117장 중 28곡(24%), 장로교와 감리교가 공동으로 발행한 『찬송가』(1908년)에는 266장 중 104곡(39%),

『신정찬송가』(1931년)에는 314장 중 132곡(42%), 『신편찬송가』(1935년)에는 400장 중 166곡(42%), 성결교에서 만든 『부흥성가』(1930년)에는 342장 중 193곡(56%), 『합동찬송가』(1949년)에는 586장 중 312곡(53%), 『새찬송가』(1962년)에는 671장 중 289곡(43%), 『개편찬송가』(1962년)은 620장 중 182곡(29%)의 “복음송”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 찬송가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음송”의 비율이 높다. 말하자면 아류(亞流)라 할 수 있는 “복음송”이 한국 교회 찬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의 찬송 책에도 “복음송”이 들어 있다는 젊은이들의 지적은 ‘역사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그 지적이 곧 현재의 “복음송”을 ‘음악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복음송”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로큰롤의 가락이나 리듬 그리고 그 비트를 이용하더라도 거기에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영어 가사의 뜻은 전혀 모르면서도 팜송을 수백 곡 불러대는 친구를 본 적이 있다. 가사가 아니라 그 곡 자체가 그 친구의 감정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음악 전문가들은 로큰롤 “복음송”을 두 세 시간 불러 도달한 감정의 상태나 일반 로큰롤을 두 세 시간 불러 이른 감정의 정도가 동일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추상성이 매우 높지만, 곡 자체가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고 있다는 음악의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송”이 성구를 포함하고 있기에 괜찮다는 주장은 ‘음악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래는 가사뿐만 아니라 진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의 찬송 책에 포함된 19세기의 “복음송”이나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최선의 “복음송”은 모두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감정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울적한 마음을 달래거나 기쁨을 고취하기 위해 감상적이거나 로맨틱한 곡을 부르고, 혹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진곡풍의 노래를 부르며, 전도를 하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다양한 곡을 부르지만 공통된 것은 그 노래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찬송은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전도의 수단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독일 예술가곡(Kunstlied)을 오페라 아리아처럼 불러서는 안 되듯이 찬송도 다른 노래를 부르듯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술가곡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술가곡을 제대로 부를 수 있듯이 찬송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는 바른 찬송을 드릴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가르친다. 앞에서 인용한 히브리서 13:15에서도 그 “입술의 열매”를 “찬미의 제사”라고 하며,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 받으심을 제사에 비교하여 가르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라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시 69:30,31). 찬송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이사가 선지자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찬송도 그 기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친다(사 57:19).
제사로 인간이 드러나 그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법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찬양으로써 인간의 감정이나 헌신을 복돋우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그 법도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흔히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정성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이교적인 것이고, 계시 종교인 기독교의 제사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나뭇과 아비후가 “여호와와 명하지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불에 죽은 일이 제사의 법도를 가르치신 직후에 발생하여 후대의 제사장들에게 큰 경고를 주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참고, 레 10:1,2).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사장과 제물이 모두 무흠해야 했다(참고, 레 21:16-24; 22:18-25).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정성을 다 기울여도 무흠할 수 없다.
따라서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것이며, 드리는 찬미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심 직한 것이 되어야지 인간의 감정을 쏟아 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하고 아무리 자기의 정열을 다 쏟고 정성을 다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 입의 낙헌제(樂獻祭)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찬송을 드렸던 것이다(시 119:108). 혹시 예배시에 부르는 곡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호를 담은 찬송을 부를 때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전 5:2)는 말씀을 명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현수 목사(대전성교회)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감신대, 2025 MTU 찬양제 성료



감리교신학대학교 2025 MTU 찬양제 참석자 기념 사진. ©감신대

학생들의 신앙과 열정이 가득 담긴 찬양제, 대상은 ‘감다살 웨지감자’팀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유경동)가 최근 ‘2025 MTU 찬양제’를 성료했다. 이번 찬양제는 감신대의 대동제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Songs to God with Wesley’s Heart - 웨슬리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는 주제로 펼쳐졌다. ‘2025 MTU 찬양제’에는 예선을 통과한 6개 팀(홀리클럽, 프레젼스 콰이어, S.D.G, 감다살 웨지감자, 합재훈, WRMC)이 참가했다. 행사에는 5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심사위원으로는 한웅재 목사, 권진숙 교수, 박성호 교수, 조형진 교수가 함께했다.

찬양제는 권진숙 학생경연처장의 개회로 시작되었으며, 유경동 총장은 개회 축사에서 “찬양으로 하나 되어 감신대라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민오디 총학생회장의 대표기도로 공식적으로 찬양제가 시작되었다.

참가팀들은 각기 다른 곡을 선보였다. 홀리클럽은 “모든 생명들이 소리쳐”, 프레젼스 콰이어는 “거룩하신 전능의 주”, S.D.G는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감다살 웨지감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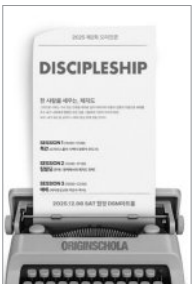
수상자들의 모습. ©감신대

피로’, 합재훈 학우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WRMC는 “예수 닭기름”을 발표하며 찬양제를 풍성하게 했다. 모든 무대가 끝난 후, 실시간 학생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대상은 감다살 웨지감자 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합재훈 학우, 우수상은 홀리클럽이 수상했다. 감다살 웨지감자 팀의 팀장 박정훈 원우는 팀명을 소개하며 “이 팀은 감리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찬양제 후에는 조성현 목사(일산광림교회)가 이끈 축복의 찬양과 함께 모든 참가팀이 연합하

여 마지막 찬양을 불렀다. 이후, 한웅재 목사의 특별공연과 유경동 총장의 축도로 행사 순서가 마무리됐다. 권진숙 학생경연처장은 “이번 찬양제는 학생들의 신앙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캠퍼스 내 찬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되었다”고 전했다. 유경동 총장은 “학생들이 즐거운 찬양의 축제를 경험한 것이 큰 기쁨”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찬양을 통해 세상에 감동을 전하는 감리교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한 사람을 세우는 제자도’ 주제로 청년들 모인다 ‘2025 오리진콘’

기독교 청년들의 모임인 오리진스콜라가 오는 12월 6일, 서울 합정 DSM 아트홀에서 제2회 오리진콘퍼런스(오리진콘)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Discipleship-한 사람을 세우는 제자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제자도에 헌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각 영역마다 사람을 세우는 제자도를 실천하고자 모인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양종석 전도사(오리진스콜라 디렉터)의 제자도 특강, 세션2에서는 ‘영역에서의 제자도 전략’을 주제로 한 영역별 토크쇼, 세션3에서는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가 말씀을 나누며 오픈워십으로 드러진다. 오리진스콜라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북클럽을 진행하며 크리스천 청년들과 가치관을 나누고 있다. 이번 제2회 오리진콘도 역시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선교적 제자도의 실천을 통해 영역주권 회복의 발걸음이 더욱 힘을 얻길 바라며 개최된다고 주최 측은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0 25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생방송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40회) 30 TV강단 삼일(송태근)	10 강연쇼 통(35회) 한국교회를 기록하다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경은 목사(진주초대교회) 30 생명의 말씀-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20 힐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사메를형제교회 권준 목사	1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50 하용조 목사의 사랑	00 생명의 양식 대환(윤영민) 30 축복의 말씀 (차영아)(357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56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5회)
	7:00	00 CTS 뉴스 W 20 생명의 말씀-박성순 목사(대구동부교회) 50 생명의 말씀-김형석 목사(필그림교회)	20 행복한 쉼터 이리산광교회 권오국 목사 50 행복한 쉼터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	30 휴먼네트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485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7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상황 손병렬 목사
	8:00	20 내가 매일 기쁘게	2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30 행복한 쉼터 삼전포 삼한교회 하태경 목사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00 하나님의 음성(78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81회) 고린도전서 11장	00 고평택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복(27회) 복음과 세상 종교 차이 30 비전메시지 새빛교회 김용일 목사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00 사랑의 메시지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사랑의 메시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	00 [말씀] 반태효 목사(방주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10 새롭게하소서(11361회) 전요셉 목사	00 성지가 좋다(504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5부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59회)
오전	10:00	00 오마이갓생 20 말씀대로 살라-김선교 선교사	00 2025 다나엘 기도회0	20 THE NEW 하늘빛항기	00 파워인터뷰(202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3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감하나 목사
	11:00	00 7000마리클 - 열방을 향하여 50 마리를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비전설교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 30 비전설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 50 예수동행일기	20 세상을 보는 창(283회) 50 만나다(1회)	00 성지가 좋다 국내편(41회) 무지내교회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35회) 50 성찬의 소리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12:00	00 CTS 뉴스 W 20 신앙예세이 3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00 사랑의 메시지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30 사랑의 메시지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	10 바이를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이진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그린시티(조성익)	20 성경 속 전경사(16회) 사사시대 최후의 내전 : 베냐민의 몰락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래클 30 구자익 목사의 트롯찬양교실	00 행복한 쉼터 임마누엘교회 전담양 목사 30 행복한 쉼터 충일교회 박상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를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율포원(682회)	30 성지가 좋다(504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5부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원더풀우먼	00 GOODTV 특별간증 2024 다나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00 말씀의 힘 창일(이사무엘) 30 CBS 아카데미 숲(169회)	00 하와이 기독교 역사탐방(1회) 거룩한 디아스포라의 시작 30 믿음의 리액션(4회) 강원도 영월
오후	15:00	40 7000마리클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말씀] 류용렬 목사(와성문중앙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380회) 민수기 8장	1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윌(36회) 한글 날 때마다 생각이 많아져요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6:00	30 생명의 말씀-장경덕 목사(분당가나안교회)	00 오희숙 목사의 국제 바이를 사관학교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40 바이를 필름 (누가복음)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6회) 50 만나는 교회(14회)	00 내 삶의 행복(181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더워십 50 신앙예세이	0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행복한 쉼터 영광의교회 조이엘 목사	30 2023 KGMLF	50 영혼의 양식 산위의마름(김영준)	00 강연쇼 통(35회) 한국교회를 기록하다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수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경년 목사(덕천교회) 30 지금, 선교해YOU	10 비전설교 혜성교회 정명호 목사 40 더 깊은 울림 헤세드 워십	10 레디온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포종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19:00	20 [드라마] 더 초존	00 사랑의 메시지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동수(주학선)	00 성지가 좋다(504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5부 30 복음강단 청주사남교회 장승권 목사
저녁	20:00	20 더워십	00 2025 다나엘 기도회 생방송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00 TV강단 순복음원당(고경환) 50 크리스찬칼럼, 중앙성결(한기재)	00 비전메시지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30 말씀노트 말씀한창 50 CTS 뉴스	00 2025 다나엘 기도회 생방송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은누리교회 SNS청년부-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81회) 고린도전서 11장 50 잘 믿고 잘 사는 법(37회)	10 감하나 목사의 말씀칼럼(41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00 GOODTV 뉴스 20 윤호국 목사의 말씀강해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믿음의 씨앗, 고령교회 패밀리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361회) 전요셉 목사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1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75회) 오택현 교수 세 번째 13강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다 : 달단 석비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25회)
	23:00	10 [CTS 30년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10 이단사이렌0	10 쟈센 프랭클린의 부흥 30 생명의 삶 50 바이를 필름 (누가복음)	10 더 콜링(161회) 30 목사님 궁금해요(129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7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리바이츠 워십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0 30 다큐 더 로드0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료 코칭1	10 2024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8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72회)	00 새예멘 강단 소강석 목사
	1:00	00 말씀대로 살라 40 내가 매일 기쁘게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니니까 - 백석대 정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왕남교회)	00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 스페셜(7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500회)	00 만나 U(3회)
	2:00	30 백세특강	0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형익 목사(백산로교회)	30 TV강단 시온(박성준)	00 만나 워십 강병삼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50 이영훈 목사의 힐링스토리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 30 [말씀] 임재영 목사(사부성결교회)	00 만나는 교회(1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감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육한홍 목사 30 [CTS 30년 믿음의 명작]내 영혼의 찬양	00 GOODTV 오늘의 찬양 10 생명양식 대일리큐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제2교회 이경연 목사	10 [말씀] 마크 최 사(뉴저지은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70회) 출애굽기 33장 50 CBS 교회소식(1024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21회) 이경의 목사 3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40회)

Maeil
Maeil Health Nutrition

AUSTRALIFE®

**맛있는 호주산 산양유 단백질,
드셔보시면 프리미엄은 확실히 다릅니다.**

1 **속편한 호주산 산양유**
국내 최다* 함유



2 **한끼 영양 설계에**
식이섬유, 오메가3까지



AUSTRALIFE®



◀ 보러가기



무료 제품 상담 및 할인 금액 주문 가능!

전화 주문 가능 (무료상담) | **080-860-1539** (내선 2번)

*국내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중, 2024년 7월 기준